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속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

- 바이올린 교육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유 진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
- 바이올린 교육을 중심으로 -

김 명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유 진

인 준 서

김유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표현적 글쓰기 이론을 바탕으로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구성하고 중학교 2학년 바이올린 교육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연주 기능과 음악적, 언어적 표현력, 흥미와 태도 등이 향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한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악 교육, 표현적 글쓰기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바이올린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2명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총 8차시에 걸쳐 중학교 2학년 바이올린 수업에 본 지도 방안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활동지와 연주 능력을 관찰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을 보기 위해 학생들이 박자, 음정, 음악적 표현의 개념을 바르게 서술하였는지 살펴보고 참관 교사의 문서와 학생 면담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을 통해 습득한 학습 요소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글로 쓰며 정리하였다. 그래서 박자, 음정, 음악적 표현의 개념을 구조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연주에 적용하였다. 그로 인해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이 향상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을 보기 위해 학생들이 수업의 흥미, 태도, 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동지에 표현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참관 교사의 문서, 학생 면담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자기표현에 집중한 글쓰기를 하면서 연주 태도가 좋아졌고 음악 애호심이 성장하였다. 또한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글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고 제재곡에 관련된 글쓰기를 하며 곡의 이해와 표현 욕구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이 향상

되었다.

셋째, 학생들의 심동적 영역을 보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연주 기능을 평가한 활동지와 참관 교사의 문서, 학생 면담을 분석하였다.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며 반성적 사고를 하게 해주었고 연주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해주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심동적 영역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표현적 글쓰기 활동에 대하여 부담감을 갖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세 영역 모두 향상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악 수업의 학습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다. 또 학습 요소들을 연주에 적용하고 평가해보면서 올바른 연주 기능들을 익힐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변화를 느끼면서 바이올린에 애착심을 갖게 되었고 연주의 자신감과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졌다. 이를 통해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이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방법	2
3. 선행 연구	3
II. 이론적 배경	6
1. 기악 교육의 의의	6
2. 글쓰기의 정의 및 유형	8
가. 글쓰기의 정의	8
나. 글쓰기의 유형	9
3. 표현적 글쓰기와 기악교육	10
가. 표현적 글쓰기의 개념	10
나. 기악수업에서 표현적 글쓰기의 필요성	12
III. 연구 방법	14
1. 연구 대상	14
2. 연구 방법 및 절차	15
3. 수업 모형	17
IV. 학습 지도 계획	20
1. 차시별 지도 계획	20

2. 지도안 및 수업 결과.....	22
가. 6차시 학습 지도안 「노바디」	22
나. 수업 결과.....	24
V. 결과.....	25
1. 연구 대상의 특성.....	25
2. 인지적 영역.....	27
3. 정의적 영역.....	35
4. 심동적 영역.....	43
5. 결과 요약.....	51
VI. 결론.....	54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2-1> 표현영역 중학교1~3학년 군 성취기준 중 기악영역.....	7
<표 3-1> 차시별 표현적 글쓰기의 주요 활동.....	15
<표 3-2> 연구절차.....	16
<표 4-1> 차시별 지도 계획	20
<표 5-1> 연구 대상의 특성.....	25
<표 5-2> 인지적 영역의 내용.....	27
<표 5-3> 인지적 영역 활동지 분석.....	28
<표 5-4> 정의적 영역의 내용.....	35
<표 5-5> 정의적 영역 분석 자료.....	36
<표 5-6> 심동적 영역의 내용.....	43
<표 5-7> 심동적 영역 분석 자료.....	44
<표 5-8> 학생별 각 영역의 결과.....	51

그 립 목 차

<그림 3-1> 직접 교수 모형.....	18
<그림 3-2>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모형.....	19
<그림 5-1>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 모습.....	26
<그림 5-2> 학생 H의 인지적 영역 활동지 자료.....	33
<그림 5-3> 학생 K의 인지적 영역 활동지 자료.....	34
<그림 5-4> 학생 E의 정의적 영역 활동지 자료.....	41
<그림 5-5> 학생 L의 정의적 영역 활동지 자료.....	42
<그림 5-6> 학생 I의 심동적 영역 활동지 자료.....	49
<그림 5-7> 학생 E의 심동적 영역 활동지 자료.....	5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방대한 정보와 창의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시대라고 하여 지식정보화시대라고 불린다. 자료를 찾는 것이 능력이라면 많은 양의 정보 혹은 지식을 자신만의 것으로 정리해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사회에서는 문제해결력, 비판적 능력, 창의력 등의 고등정신 기능을 갖춘 사람을 요구한다. 학교에서는 그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 각 교과목의 내용을 습득한 후 자신만의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현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¹⁾

음악 교과에서도 표현력은 기본이 된다. “기악 활동에서 표현이란 자신의 느낌을 기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²⁾ 따라서 기악 활동은 체험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특성상 기악 수업을 할 때에 교사가 학습자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수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기악 수업에서 기능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만 기대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머셀(J.L. Mursel)은 “기악 활동이 학습자에게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활동”이라고 했다. 또 기악 학습의 이상적인 목표는 기능 연마가 아니라 연주를 통해 음악을 몸에 익히고 음악을 애호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 하였다.³⁾ 기악 수업이 단순한 기능 연마에서 벗어나 음악적 표현

1) 안병섭(2010). 표현력을 키우는 표현 중심 쓰기 교육 방법. 서울: 월인. p.31.

2) 이홍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 p.32.

3) J.L. Mursell, M.Glenn, 한국음악교재연구회 번역(1987). 음악교육심리학. 서울: 세광음악사. pp.232-235. 재인용

의 매개체 역할을 하려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자신의 공개영역⁴⁾을 넓힐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에게 더 나은 기악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해보고자 한다.

글쓰기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고 국어과뿐만 아니라 예체능, 과학, 사회 등의 과목에서도 글쓰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범교과적 글쓰기라고 한다. 다니엘스(Daniels, H)는 “범교과적 글쓰기가 각 교과 의 내용 영역 학습을 돕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⁵⁾ 특히 음악 교과에서 표현적 글쓰기 활동은 어떤 교과보다 상호적인 관계를 이루며 자기표현에 집중하게 하여 음악 학습에 높은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을 통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방법

이 연구는 중학교 2학년 바이올린 수업에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하여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만들어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갖는다.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다. 또 학생들과의 피드백에서 나타난 변수와 개발과정에서 놓친 점을 보완, 수정하여 지도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문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 조하리의 창이론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알고 있고 상대에게도 인지되는 영역을 공개영역이라 부른다. 이 공개영역이 확대될수록 표현에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

5) Gsil E. Tompkins, 이재승 외 옮김(2012).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박이정. p.286. 재인용.

연구 방법을 실행한다.

첫째, 기악 수업과 표현적 글쓰기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조사한다.

둘째,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구성한다. 수업 지도 방안 구성 과정에서 현직 음악교사의 면담과 음악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제시한다.

셋째, 학생들과의 면담과 참관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 과정을 도출한다.

3.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와 글쓰기 활동을 적용한 다른 교과와 사례,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수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았다.

표현적 글쓰기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해진⁶⁾은 표현적 글쓰기의 개념과 특성을 서술하였다. 표현적 글쓰기는 자기표현을 통해서 내면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글쓰기로 보았다. 또 표현적 글쓰기는 글쓰기에 미숙한 학생들에게 부담 없이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교육을 떠나 여가생활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본 논문의 글쓰기 활용 취지에 적합한 내용으로 본 연구의 초석이 되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다. 오임순⁷⁾은 표현적 글쓰기가 학생들의 감정 표출을 돕고 기억력 증대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래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표현적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결과는 표현적 글쓰기가 글쓰기 능력과 글쓰기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오임순의 논문은 기악 수업에서 표현적 글쓰기의 적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접할

6) 이해진(2009). 표현적 글쓰기 교육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7) 오임순(2009).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중학생 쓰기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수 있게 하는 연구이다.

글쓰기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범교과적으로 글쓰기를 활용한 수업이 연구되고 있다. 서장원⁸⁾은 체육수업에서 글쓰기를 적용하였다. 글쓰기는 체육수업에서 신체활동을 하고 습득된 지식을 구조적인 형태로 저장시켜주고 학생들이 체육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 쓰는 시간의 차이를 두어 활동 전, 활동 중, 활동 후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활동 전 글쓰기는 동기 강화를 이끌어 냈고 활동 중 글쓰기는 신체 활동을 정밀화 시켰다. 활동 후 글쓰기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반성이 습관화 되도록 하였다. 활동의 시간에 따른 글쓰기가 각각 다른 효과를 준다는 흥미로운 연구이다. 최윤경⁹⁾은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과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글쓰기의 표현 유형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글, 그림, 만화, 마인드맵, 표, 퀴즈의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하였고 학습의 요약과 새로운 지식, 생각 등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표현적 글쓰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보고했다. 최윤경의 연구는 표현적 글쓰기의 형태가 부담스러운 학생에게는 다양한 표현 유형으로 학습을 정리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글쓰기 결과물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연구이다.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 수업 지도에 관한 연구를 한 이지현¹⁰⁾은 쓰기가 언어 능력과 문화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기 때문에 감성 위주의 음악교육을 상호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과 교과서의 분

8) 서장원(2008). 초등체육수업에서의 글쓰기 유형 및 적용 사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제 15권 제 4호, pp.87-106.

9) 최윤경(2011). 과학수업 정리 단계에서 작성한 초등학생들의 표현적 글쓰기 특성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10) 이지현(2003).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 수업 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초,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글쓰기 수업을 만들어 냈고 그 지도안은 쓰기 수업 방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음악 교육에 긍정적인 도전이 될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김선미¹¹⁾는 학문적 글쓰기¹²⁾를 활용하여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글쓰기 유형을 모색하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가창영역과 감상영역에는 창의적 글쓰기, 기악영역과 창작영역에는 비평적 글쓰기를 하여 학습에 흥미와 높은 학습의 효과를 유도하였다. 또 평가관점을 제시하여 글쓰기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제 음악 수업에 적용하기에 용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바이올린 수업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김선미(2012). 학문적 글쓰기를 활용한 중등 음악 수업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 연구, 제 41권 제 2호, pp.125-146.

12) 이론적 배경의 글쓰기 유형에서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기악 교육과 글쓰기에 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기악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글쓰기의 정의와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것을 토대로 글쓰기 활동이 기악 수업에 어떤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1. 기악교육의 의의

음악은 언어와 도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발생되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냥의 신호에 혹은 춤과 노동생활, 감정 표현, 종교적 의식 등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¹³⁾ 현재까지도 우리는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음악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음악 교육은 학습자에게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을 골고루 향상시키고 학습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공교육에서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에서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는 많지 않다. 기악 활동은 학습자가 공통교육의 이후에도 여가 생활로 연장시킬 수 있다.¹⁴⁾ 우리가 삶 속에서 취미로 즐길 수 있는 특기를 가지는 것은 일상의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된다. 기악 교육은 인간이 지닌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¹⁵⁾ 가창 활동 또한 기악 활동과 유사한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악 활동은 가창 활동에서 소극적일 수 있는 선천적인 성

13) 권덕원 외(2009).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pp.45-46.

14) 석문주 외(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파주: 교육과학사. pp.170-172.

15) 이홍수(1992). 전개서. p.87.

대의 질환을 가진 경우나 제 2차 성장기인 학습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경험을 제공한다.¹⁶⁾

2009 개정 음악 교육과정은 표현, 감상, 생활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악 영역은 표현 영역에 속해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학교의 표현 영역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표2-1>과 같다.¹⁷⁾

<표2-1> 표현 영역 중학교 1~3학년 군 성취 기준 중 기악 영역

영역	내용체계	중학교 1~3학년 군
표현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2)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1)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3)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 있게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성취 기준에 맞는 기악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주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교육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선율악기를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하며 악곡의 특징을 살려 아름답게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악 연주란 신체 운동이 더해진 사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할 때 또한 단순 반복의 의미가 아닌 개인이 학습해야 할 요소를 구체화하여 인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기악 수업에서는 교사의 전수만으로는 완전한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활동이 더해져야만 한다. 기악 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은 학습의 정리를 돕고 표현의 방법이 되며 반성의 기회를 준다. 기악 수업에 적합하고 가치 있는 표

16) 이용일(1992). 음악교육학 개설.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p.30.

17) 교육과학기술부(2012). 음악과 교육과정. 제2011-361호 [별책 12], pp.3-4.

현적 글쓰기 활동을 적용한다면 학습자에게 한 단계 높은 기악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글쓰기의 정의 및 유형

가. 글쓰기의 정의

글쓰기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이나 사실 따위를 글로 써서 표현하는 일로 명시되어있다. 이 밖에도 글쓰기에 대한 의미는 여러 연구자들에게 정의되어 지고 있다. 노명완은 글쓰기는 문자 언어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활동¹⁸⁾이라고 했고 안병섭은 글쓰기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인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며, 사고를 구체화시키는 지적인 행동이고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¹⁹⁾이라고 했다. 결국 글쓰기라는 것은 단순히 적는 행위의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쓰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의사소통과 사고력, 학습의 주된 수단이 된다. 또 자기 숙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언어 기능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성을 함양하고 교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문화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²⁰⁾

위의 특성과 같이 글쓰기는 국어과 학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어과 외의 다른 교과에서도 글쓰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과에서는 글쓰기를 활용한 활동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글쓰기의 특성은 기악

18) 노명완 외(2012), “국어교육학개론”, 서울: 삼지원. p.335.

19) 안병섭(2010), 전게서. p.17.

20) 이재승(2002).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p.14.

수업에서 학생들이 단순한 기술 연마를 넘어, 개념을 사고하고 음악을 표현하도록 해준다. 또 자기 속고를 통해 발전을 돕는다.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 기악 수업에 한층 더 높은 교육 효과를 줄 것이라 보고 바이올린 교육에서 글쓰기 활동을 적용하고자 한다.

나. 글쓰기의 유형

글쓰기는 의도나 목적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글쓰기의 유형을 나누고 정의하게 된 것은 글쓰기가 표현 기교에 대한 능력을 계발,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예전과 달리 현대에 와서는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나 소재, 즉 전달 대상과 글을 읽는 사람에게 주는 전달 효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²¹⁾

김선민은 학문적 글쓰기는 계획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쓰기라고 정의했다. 학문적 글쓰기를 총 6가지의 문종으로 범주화하였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요약문과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설명문, 필자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대상을 이해시키는 설득문, 필자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대상에게 생각을 보다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논설문, 주장과 근거를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의 의견을 증명하는 논증문,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양식을 포함하는 창의적이고 대상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창의문으로 나누었다.²²⁾

브리튼(Britton)은 영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쓴 2000여 편의 글을 분석하면서 문학적(poetic) 글쓰기, 표현적(expressive) 글쓰기, 의사소통적(transactional) 글쓰기로 분류하였다. 문학적 글쓰기는 정서 표현의 글쓰기

21) 김훈, 전상록, 최웅, 정금철, 유태수, 남기덕(2005). 인문학 글쓰기. 서울: 북스힐. p.67.

22) 김선민(2008). 학문적 글쓰기의 유형, 구조, 지도 단계, 한국초등국어교육, 제 38집, pp.55-59.

로 보다 공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성격을 갖고 소설과 시를 예로 들 수 있다. 표현적 글쓰기는 정서표현과 친교적인 목적의 쓰기로 모든 쓰기의 바탕이 되며 보다 사적이고 자아에 가까우며 편지, 저널, 개인적 에세이, 자서전이 표현적 글쓰기에 속한다. 의사소통적 글쓰기는 정보 전달과 설득을 포함하는 보다 공적이며 명시적이고 설명문과 논설문, 과학보고서 같은 글쓰기를 말한다.²³⁾

본 논문에서 활용하고자하는 유형은 표현적 글쓰기이다. 표현적 글쓰기는 모든 쓰기의 기본이 되고 여러 음악적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바이올린 교육에 적용하고자 한다. 표현적 글쓰기가 바이올린 교육에 적합함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한다.

3. 표현적 글쓰기와 음악교육

가. 표현적 글쓰기의 개념

표현적 글쓰기는 형식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부각시키는 글쓰기이다. 1960년대에 조명 받으며 담화의 독립적인 형태로 구분되어 특정한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글쓰기와 같이 고정된 범주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른 글쓰기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이동이 가능한 범주를 가진다. 즉,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도 표현적 글쓰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²⁴⁾ 여승욱은 글을 쓸 때에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아를 알게 되는 것이 표현적 글쓰기의 핵심이라

23) 최숙기(2007). 자기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의 교육적 함의, 작문연구, 제 5집, pp.208-209. 재인용.

24) 김명순(2002). 표현적 쓰기의 특징과 지도 방향, 국어교육, 109호, pp.8-9.

하였다. 또 자신과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진솔성은 표현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였다.²⁵⁾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표현적 글쓰기는 학습과 거리가 먼 글쓰기라 오인하기 쉽다. 의도하지 않아도 글 속에 표현적 글쓰기의 원리가 동원되기 때문에 표현적 글쓰기를 개별화하여 교육하지 않게 된다. 또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글쓰기 교육에서 표현적 글쓰기가 아주 배제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다. 교육과정 속에 표현적 글쓰기가 상용되고 있지만, 정서적 표현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고 자아표현의 기능을 아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²⁶⁾ 이러한 여러 이유로 표현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교육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표현적 글쓰기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로 증명되고 있다. 버트(Butt, G.)는 표현적 글쓰기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교육적으로 이점을 준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지식을 구조화시키고 내면화시킨다. 또 그 과정에서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식과 새로 습득한 지식을 연결하여 학습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또 교사들은 학습자가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고 글을 썼을 때 글 속에 학습자의 사고가 명료화되는 과정이 나타나며 학생들의 가치, 태도, 신념의 발달과정을 글로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²⁷⁾ 박영민은 표현적 글쓰기의 일종인 글쓰기 치료가 건강과 기초적인 인지 과정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는 글쓰기 치료는 내재된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처리 능력을 높여준다고 했다.²⁸⁾ 이로써 표현적 글쓰기는 학습적인 차원뿐

25) 여승욱(2010). 표현적 쓰기를 활용한 인문계 고등학생 쓰기지도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19.

26) 김명순(2002). 전계서, p.2.

27) 박인순, 조철기(2009). "지리를 통한 표현적 글쓰기 전략의 적용과 효과", 중등교육연구, 제 57권 제 3호, p.3. 재인용.

28) 박영민 외(2007). "쓰기 치료의 국어 교육적 활용과 기대 효과", 배달말, 41호, p.356.

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적 글쓰기의 종류는 일기, 편지, 저널, 자서전, 에세이 등이 있다. 표현적 글쓰기의 성향이 깊은 종류의 글들은 체계적으로 교육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흔히 사실을 나열하는 식의 글쓰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표현적 글쓰기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적 글쓰기의 교육적 활용은 충분하므로 장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현적 글쓰기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활동지에 기록하면서 학습을 명료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글쓰기에도 음악적 표현 성장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나. 기악수업에서 표현적 글쓰기의 필요성

기악 연주는 다양한 음악적 체험과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악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악기 연주에서 곡에 담겨있는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표현하려면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²⁹⁾ 같은 음악을 연주하지만 연주자에 따라 곡의 느낌이 달라지는 이유는 연주자의 표현 능력이 곧 음악이 되기 때문이다.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없는 글은 필자와 독자에게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음악 수업에서 비평문이나 감상문 쓰기를 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개인적 경험과 자신의 느낌을 부각시킨 표현적 글쓰기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되었듯 표현적 글쓰기는 다른 종류의 글쓰기의 기본이 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은 방식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문체로 생각을 서술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고 시도할 수 있다.

29) 이홍수(1992). 전계서. pp.85-87.

기악 수업에서는 교사의 기악 교습과 학생들의 연습이 중요한 학습 과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학습 요소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연습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학습 요소를 구조적으로 저장할 보조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가 각 학생의 연습 과정을 지켜볼 수 없다. 또 전공자들과 달리 학생들은 연습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습 시간을 관리해줄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표현적 글쓰기의 한 종류인 일기나 편지 등을 쓰게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 표현적 글쓰기는 자신이 느낀 것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글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을 제공한다.³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매 차시 마다 반복적으로 표현적 글쓰기 활동을 하면서 학습 요소 정리, 연습의 효율성, 음악의 애호심, 자기반성을 하게 되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이 성장할 것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0) 김명순(2002). 전계서. p.22.

Ⅲ.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연구 절차를 걸쳐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제시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K중학교의 바이올린 부 2학년 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교사의 권유로 2학년 동아리 신청기간에 들어온 1명의 학생과 1학년 동아리 신청기간에 바이올린 부에 들어오면서 바이올린을 시작한 1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권유로 들어온 학생의 경우 바이올린의 실력은 부원들과 비교해 월등한 편에 속하지만 개인 교습 교사의 강제적인 교육으로 바이올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경우이다. 연구 대상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바이올린 부를 선택한 이유로는 1지망으로 선택한 부의 인원수 제한이 6명이었다. 그 외 9명은 바이올린에 대한 호기심, 교사, 친구의 권유로 바이올린 부에 들어왔다. 음악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은 14명이고 1명의 학생을 음악을 싫어한다고 대답하였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 14명 중에서 6명은 음악을 좋아하지만 어렵고 복잡하다고 대답했다. 그 외 8명은 음악을 듣는 것과 연주하는 것, 선생님과 교감,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음악을 싫어한다고 대답한 1명의 학생은 위에서 설명한 교사의 권유로 동아리에 들어온 학생으로 재미가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음악적 배경과 기본 성품의 차이를 갖고 있었다. 바

이올린을 같은 시기에 시작한 14명의 학생들은 1학년 때에 실력은 모두 비슷했다. 하지만 음정과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야 함을 설명해주었을 때 리듬을 입으로 말해보거나 교사의 시범을 녹음하는 등의 논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과 본인이 무엇을 틀리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 또 교사의 권유로 바이올린 부에 들어온 1명의 학생은 의욕 저하인 상태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악 연주에 대한 동기부여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섬세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8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업의 객관적인 관찰을 위해서 바이올린 방과 후 교사가 참관하였다. 8차시가 진행되는 동안 매 차시마다 활동지를 활용해 수업을 하였다. 활동지의 문항은 매회 같은 구조로 학습 요소에 관한 문항과 언어적 표현과 자기표현을 위한 문항, 자기평가 또는 상호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차시별 표현적 글쓰기의 주요 활동은 <표3-1>과 같다.

<표3-1> 차시별 표현적 글쓰기의 주요 활동

차시	표현적 글쓰기 주요 활동
1차시	음악으로 마인드맵 만들기
2차시	우편마차 감상 후 감상문 쓰기
3차시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 및 발표
4차시	연주 후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쓰기
5차시	지난 수업의 편지 단어 바꾸기, 문장 늘이기
6차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쓰기
7차시	노바디 개사하기
8차시	합주 소감 쓰기

1차시는 학생들에게 음악으로 마인드맵을 하고 완성된 마인드맵에서 단어를 선택하여 활동지에서 사용할 별명을 만들도록 하였다. 2차시는 제재곡을 감상하고 감상문 쓰기를 진행했다. 표현적 글쓰기를 위해 자신의 감정표현에 집중하도록 지도하였다. 3차시는 구체적인 표현을 끌어내기 위해 제재곡을 감상 후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 곡을 표현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적도록 했다. 4차시는 제재곡에 대한 학생들의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편지 쓰기를 진행하였다. 곡의 가사를 이해하고 편지를 쓰는 것으로 곡의 분위기를 학생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5차시는 지난 수업의 편지를 같은 느낌의 다른 단어로 문장을 바꾸고 늘려보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의 표현의 폭을 넓히기 위한 활동이므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하였다. 6차시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쓰기를 하였다. 제재곡인 노바디의 가사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7차시는 노바디를 개사 하였다. 바이올린 파트가 반주를 하는 부분을 개사하면서 학생들이 멜로디를 정확하게 알고 또 지난 수업에서 작성한 소중한 것과 관련하여 개사하면서 음악적 표현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였다. 8차시는 그룹별로 합주를 하고난 소감을 적는 활동을 하며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절차를 자세하게 제시하면 <표3-2>와 같다.

<표3-2> 연구 절차

순서	내용	비고
1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에 대해 면담	2013년 9월-10월
2	글쓰기와 기악수업에 대한 문헌 연구	2013년 9월 -2014년 5월
3	연구대상 선정	2014년 2월말
4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 구성	2013년 10월 -2014 3월
5	바이올린 교육에 적용	2013년 3월 14일 -2014 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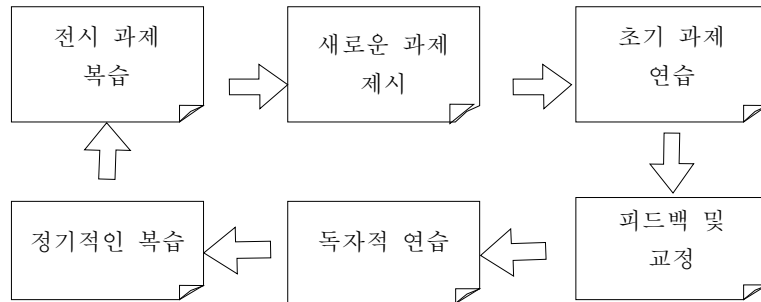
먼저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에 대한 음악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해보았다. 5명의 중학교 음악교사와 면담을 해본 결과 글쓰기가 교육적 효과가 높고 음악의 표현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수업 방식의 생소함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글쓰기와 기악 수업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글쓰기가 음악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기악 수업에 적합한 표현적 글쓰기 유형을 선택하였다. 음악교육전공 교수, 음악과 교사, 방과 후 기악 교사에게 지도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여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구성하고 적용하였다.

3. 수업 모형

현재 바이올린, 플룻, 가야금 수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음악교사를 인터뷰한 결과 악기의 종류와 학생의 인원수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기악 수업의 형태는 개인 레슨과 그룹 레슨을 병행하는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많은 인원수를 짧은 시간에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각 학생들에게 매순간 신경을 써주지 못해 방치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업을 만들기 위해 로젠샤인(B.Rosenshine)의 직접 교수 모형³¹⁾을 적용하고자 한다. 직접 교수 모형은 학생이 교사의 관심 속에서 연습을 하고 교사는 학생이 연습하는 것을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 교수 모형의 구체적 단계는 전시 과제 복습, 새로운 과제 제시, 초기 과제 연습, 피드백 및 교정, 독자적 연습, 정기적인 복습으로 6단계이고 <그림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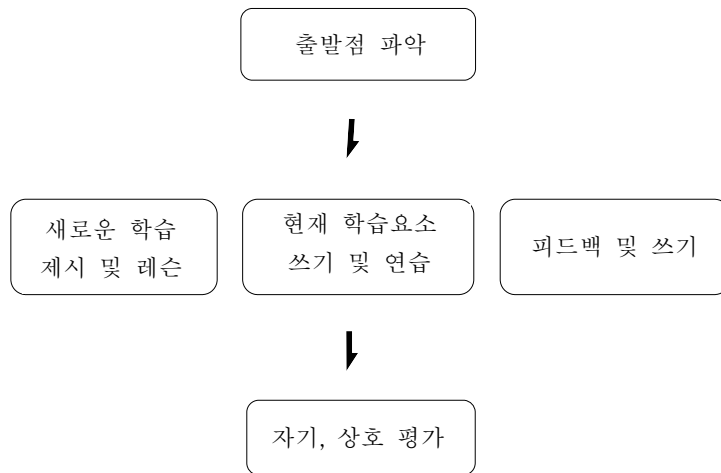
31) Michael Metzler, 유정애 외 공역(2003). 체육수업 모형. 서울: 대한미디어. pp.228-235. 재인용.



<그림3-1> 직접 교수 모형

전시 과제 복습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전 수업에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 있고 이전에 배운 내용을 회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초기 과제 연습 단계는 과제 제시 이후 진행되고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습하는 단계이다. 피드백 및 교정 단계는 다음 과제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이전 단계로 돌아가 학습 과제를 되풀이하게 한다. 독자적인 연습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연습 과제에 능숙해졌을 때 실행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참여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복습 단계에서 교사는 이전 학습 과제를 반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직접교수 모형은 표현적 글쓰기 활동과 바이올린 교육을 함께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수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적합하므로 바이올린 교육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기악 수업은 다른 학습과 다르게 악기를 다루는 실습의 수업이므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즉시 적는 일이 드물다. 수업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구조화되지 못하면 빨리 잊혀 지기 쉽다. 쓰기는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단순한 기능이지만 기악 수업에서 쓰기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자기 숙고의 기회와 학습동기 유발, 음악적 표현의 성장, 목표의식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수업 모형은 <그림3-2>와 같다.



<그림3-2>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모형

출발점 파악 단계는 학생들이 지난 수업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교사와 학생들은 새로운 학습을 하기 전에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 새로운 학습 제시 및 레슨, 현재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피드백 및 쓰기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이므로 수업에 따라 순서를 배치하여 수업한다. 새로운 학습 제시와 레슨이 끝난 학생은 현재 학습요소를 쓰고 연습에 적용한다. 피드백 및 쓰기는 각 차시마다 제공되는 제재곡에 따라 적극적으로 표현적 글쓰기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자기, 상호평가는 수업에서의 본인과 친구들을 평가하면서 자신을 회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단계에서 작성한 글은 다음 수업의 출발점 파악에 도움이 된다.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의 모형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수업 모형이다. 악기 연주에도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듯 글쓰기와 표현력에도 반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8차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표현적 글쓰기를 유도하고 그것을 음악적 표현으로 연결시켜주는 수업을 하였다.

IV. 학습지도 계획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은 100분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차시별 계획과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1. 차시별 지도 계획

총 8차시에 걸쳐 진행될 내용은 연구 대상의 학교 행사일정에 따라 계획되었다. 연주 일정이 계획되어있는 상황이므로 개인 연주 수업 7차시와 합주 수업 1차시로 구별하여 구성하였다. 각 차시별 지도 계획은 <표4-1>과 같다.

<표4-1> 차시별 지도 계획

차시	수업 형태	학습목표	학습활동	제재곡
1차시	개인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점을 파악하고 바른 자세로 연주할 수 있다. • 음악 마인드맵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을 알고 활동지 별명을 만들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발점 파악하기 2. 기본자세 레슨 3.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4. 음악 마인드맵 5. 자기평가 	스즈키 2권 활연습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표와 임시표 지키며 연주 할 수 있다. • 표현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우편마차 감상문을 쓸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발점 파악 2. 임시표 설명 및 레슨 3.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4. 우편마차 감상 후 감상문 쓰기 5. 자기평가 	우편 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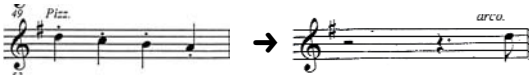
차시	수업 형태	학습목표	학습활동	제재곡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a와 악센트를 지켜 연주할 수 있다. • 우편마차의 음악적 표현을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발점 파악 2. Coda 설명 및 레슨 3.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4.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 및 발표 5. 자기평가 	우편마차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분음표와 16분음표, 점음표를 정확한 박자로 연주할 수 있다. • 쉬는 마디를 세어 박자에 맞게 연주할 수 있다. • 제재곡 감상 후 표현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편지를 쓸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발점 파악 2. 8, 16분음표, 점음표길이, 쉬는 마디 설명 및 레슨 3.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4. 감상 후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쓰기 5. 자기평가 	유레이즈미업
5차시	개인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조를 의식하여 조표에 맞게 연주 할 수 있다. • 지난 수업의 편지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고쳐 쓸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발점 파악 2. 전조와 조표 설명 및 레슨 3.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4. 지난 수업의 편지 단어 바꾸기, 문장 늘이기 5. 자기평가 	유레이즈미업
6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치카토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 • 제재곡의 가사 뜻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쓸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발점 파악 2. 피치카토 설명 및 레슨 3.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4.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쓰기 5. 자기평가 	노바디
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셈여림을 표현하여 연주할 수 있다. • 지난 수업에 적은 소중한 것으로 제재곡의 가사를 개사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발점 파악 2. 셈여림 설명 및 레슨 3.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4. 노바디 개사하기 5. 자기평가 	유레이즈미업, 노바디

차시	수업 형태	학습목표	학습활동	제재곡
8차시	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연주할 수 있다. 연주 후 합주한 소감을 표현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쓸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점 파악 합주에서 유의할 점 설명 및 레슨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그룹연습 합주 소감 쓰기 상호평가 	유레이 즈미업 노바디

2. 지도안 및 수업 결과

본 장에서는 총 8차시의 수업 중 6차시 지도안을 제시하고자한다.³²⁾

가. 6차시 학습 지도안 「노바디」

곡명		노바디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치카토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 제재곡의 가사 뜻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쓸 수 있다. 		
준비물		바이올린, 활동지	차시	6/8차시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출발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수업의 학습요소 확인하기 - 학생들은 전 차시 활동지를 참고하여 지난 수업의 자신을 돌아본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새로운 학습요소 제시 및 레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치카토 설명 - 현악기의 줄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주법으로, pizz.라는 줄임말로 표기하고, 활로 연주하는 아르코와 대비됨을 설명한다.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레슨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32) 나머지 차시의 지도안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p>새로운 학습 요소 제시 및 레슨</p>	<p>-활을 들고 피치카토를 할 때에는 활이 줄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판 끝부분을 검지의 안쪽 살로 튕겨 연주함을 설명한다.</p> <p>▶개인 레슨</p> <p>-학생이 학습요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한다.</p> <p>-학생 개개인의 지난 수업의 활동지를 보며 좋아진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p> <p>-피치카토를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곳을 인지하고 재빨리 활로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수 있도록 돕는다.</p>
<p>현재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p>	<p>▶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p> <p>-학생들이 학습요소를 글로 적으며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단계이므로 배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한다.</p> <p>-학생들이 기록한 것을 유념하여 연습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p>		<p>• 개인 레슨시간 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며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피드백 및 쓰기</p>	<p>▶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쓰기</p> <p>-학생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시간을 준다.</p> <p>-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소중한 대상을 정하는 것에 있어 신경 쓰지 않도록 자신에게 소중하다면 무엇이든 가능함을 설명한다.</p>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정리	자기평가	▶자기평가 -오늘 자신을 평가하며 다음 수업의 다짐의 기회를 갖는다. -학생들이 자기반성이 충분히 들어간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10분			
		평가관점				
인지적 영역	학생들이 피치카토 연주 방법을 이해하고 연주하였는가?					
정의적 영역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심동적 영역	학생들이 피치카토를 하기 위해 활이 줄에 닿지 않게 들고 살점으로 현을 튕길 수 있는가?					

나) 수업 결과

학생들이 피치카토로 연주하는 것을 재미있어 했고 활동지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높은 수업이었다. 또 표현적 글쓰기에 적응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학생들은 이전 차시들의 글쓰기 활동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써왔다. 하지만 6차시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글쓰기에서는 다양한 대상을 적었고 교사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어 적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글로 쓰기 위해 피치카토를 해보고 바로 글로 옮겨 적었다. 또 글로 정리하면서 곡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쓰는 활동은 제재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글을 쓰면서 활동지를 채워가는 보람을 느꼈다.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을 한 학생들의 모습은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활동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세 영역의 향상이 느렸고 나타나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 각 영역의 학생들의 자세한 변화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V. 결과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적용한 수업 결과는 수업을 진행한 교사(연구자)와 관찰의 객관성을 위해 수업에 참관하는 교사의 문서를 통해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나누어 관찰,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 대상의 특성은 지도 교사(연구자)가 겪은 학생들의 특징과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을 하는 동안 활동지에 이름 대신 1차시에 만든 별명을 사용하였다.³³⁾

<표5-1> 연구 대상의 특성

학생	바이올린 연주 실력	성격	특징
매력있는 콩나물(A)	부원들 중 높은 편이다.	차분한 성격에 집중력이 높다.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비싼 광화문(B)	부원들 중 낮은 편이다.	긍정적인 성격이고 실력에 비해 자신감이 높아 자기 표현에 능숙하다.	수업의 참여도는 높지 않으나 바이올린은 좋아한다.
오선지(C)	부원들 중 보통이다.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다.	수업의 참여도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다.
갈색바흐(D)	부원들 중 높은 편이다.	성격이 활발하고 급한 면이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자신의 연주 실력에 자부심이 있다.
춤추는 바이올린(E)	부원들 중 가장 높다.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의사는 분명하게 표현한다.	강압적인 바이올린 레슨으로 인해 음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피아노 신난다(F)	부원들 중 낮은 편이다.	교사의 말을 잘 따르고 얌전한 성격이다.	연습의 집중도가 낮다.

33) 분석 내용에서는 학생들을 알파벳으로 제시하였다.

학생	실력	성격	특징
옥타브 귀요미(G)	부원들 중 보통이다.	수줍음이 많다.	실력 향상이 노력에 비해 늦다.
EXO멋짐 ♡(H)	부원들 중 보통이다.	진심과 달리 부정적으로 돌려 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손이 작아서 바이올린 운 지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베토벤 코딱지(I)	부원들 중 보통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다.	기본적인 실수가 잦다.
박자(J)	부원들 중 높은 편이 다.	하기 싫은 것은 금방 포 기한다.	이해도가 높아 어떤 것이 든 쉽게 습득한다.
클래식 연주회(K)	부원들 중 높은 편이 다.	적극적인 성격이고 할 일 은 반드시 해낸다. 고집이 있다.	교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
ㄷㅎ♡ ㅇ츠(L)	부원들 중 낮은 편이 다.	피가 많고 산만하다.	자리 이탈이 빈번하고 수 업 분위기를 흐린다.
음악의 신(M)	부원들 중 높은 편이 다.	욕심이 있다.	잘 못된 자세로 소리 표 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안한 바이올린 (N)	부원들 중 보통이다.	소극적인 성격이다.	부원들과의 다툼으로 소 극적으로 변했고 뒷자리 에서 학원 숙제를 한다.
음악(O)	부원들 중 낮은 편이 다.	활발한 성격이다.	연습과 학습에 관련된 활 동에 무관심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을 했을 때 어떤 영역이 향상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5-1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 모습>

2. 인지적 영역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인지적 영역에 관한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박자, 음정, 음악적 표현의 변화가 있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5-2>와 같다.

<표5-2> 인지적 영역의 내용

인지적 영역	내 용
박자	·2/4박자의 여러 가지 리듬 ·4/4박자의 여러 가지 리듬
음정	·임시표 ·전조
음악적 표현	·피치카토 ·셈여림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쓴 표현적 글쓰기 활동지와 수업 후 면담으로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음악 요소를 알고 있지만 연주에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박자와 음정, 음악적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연주하는 것 보다 자신의 감으로 대중을 맞추어 연주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다. 하지만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하여 오늘 배운 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글로 표현하고 정리하면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박자에 관한 개념이 향상 되었다. 인지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는 활동지 1번 문항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매 차시마다 다른 모습을 보였으므로 학생 개개인 별로 변화된 차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활동지 내용은 <표5-3>과 같다.

<표5-3> 인지적 영역 활동지 분석

학생	활동지 결과물	
매력있는 콩나물 (A)	<p><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 똑바로 쓰기 ·활털 풀어서 보관하기 	<p><8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p> <p>지휘자를 보며 연주해야한다. 내 소리와 옆 친구들의 소리를 함께 들어야한다. n, v 악보에 표시하기. 다 같이 활 맞추기</p>
비싼 광화문 (B)	<p><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p> <p>활 쪽쪽 쓰기</p>	<p><5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p> <p>전조는 조표가 중간에 바뀌는 것이다. 음정 짚을 때 테이프에 정확히 누르기 점음표, 리듬 정확하게 하기</p>
오선지 (C)	<p><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p> <p>온음표 활 다 쓰기 악기 넣을 때 활 풀기</p>	<p><6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p> <p>피치카토는 바이올린 연주 주법에 하나이다. Pizz. 이렇게 쓰고 arco. 표시에서는 활로 다시 연주한다. 활을 들고 (손등을 손목 위로 떨어뜨린다. 검지 손가락의 살로 현을 튕겨서 연주한다.) 손톱 안 됨 ㅋㅋ</p>
갈색바호 (D)	<p><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p> <p>어깨 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정확한 음정으로 소리내기</p>	<p><7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p> <p>셈여림 악보에 써있는 대로 하면 된다.</p>
춤추는 바이올린 (E)	<p><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p> <p>활털은 풀어서 보관해야한다. 악기는 어깨높이만큼 올려야 한다. 박자에 맞추어 소리를 내야한다. 활털을 현에 밀착시켜 소리 낸다.</p>	<p><5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p> <p>처음과 전조는 악곡의 진행 중간에 다른 조로 바꾸는 것이다. 파#> 파도솔#> 시미 b 바뀔 때마다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연주해야한다. 신경 쓰지 않으면 전혀 다른 노래가 된다. 미 b 은 A선에서 4번</p>

학생	활동지 결과물	
피아노 신난다 (F)	<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활 잘 쓰기	<5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이 곡은 두 번 진조됨. 파#, 파도솔#, 시미 b 조표가 바뀐 다음에 파도솔# 제자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굽히기 새끼손가락 올리기
옥타브 귀요미 (G)	<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①활털을 풀고 보관한다. ②박자를 채워서 소리내기 ③활털을 줄에 붙이고 소리내기 ④손목 펴고 연주하기	<4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①2박자 채워서 소리내기 ②점4분음표, 8분음표, 부점 정확하게 연주하기 ③16분음표가 8분음표 보다 반 박자 짧다는 것 알기
EXO 멋짐 (H)	<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활털을 풀고 보관한다. ·박자에 맞추어 소리 낸다. ·활털을 줄에 붙여서 소리 내야 소리가 좋아진다. ·손목을 펴고 연주하기	<8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합주는 다 같이 연주하는 것이다. ·지휘자를 보면 해야 한다.
베토벤 코딱지 (I)	<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활털을 풀고 보관해야 해!	<8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합주할 때는 다 같이 활을 맞추고 소리도 맞추어야 한다. 혼자 연주하는 것처럼 하면 맞게 연주했어도 틀린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박자 (J)	<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활털을 풀고 보관 ·음표 가득 채워 연주 ·활털 붙여야 좋은 소리 잘남 ·손목 펴고 연주	<6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피치카토는 손으로 튕겨서 연주한다. 이곡에서는 활을 들고 연주한다. 피치카토 할 때도 음정은 정확하게 연주한다.
클래식 연주회 (K)	<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활을 길게 써야 예쁜 소리가 남. ·음정을 제대로 맞춰야 함 ·바이올린을 잡을 때 손목을 90도로 직각을 만들어 연주해야 함 ·활의 힘을 빼야함	<6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피차카토(Pizz. 줄임말로 표시한다.) →손가락을 튕겨 연주하는 것이다.→검지 손가락의 살점으로 튕겨야 한다. ·아르코→다시 활로 연주해야한다. ·활대가 줄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학생	활동지 결과물	
C H O C (L)	<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1)바이올린 줄은 G, D, A, E 2)온음표는 활을 다 쓴다. 3)박자는 꼭 채워서 소리를 낸다. 4) 활털 풀어서 보관한다.	<4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박자: 8분음표, 16분음표, 점음표, 겹점음표 $\overset{2}{ }\text{—} \rightarrow 2\text{마디 쉬기}$ 부점 리듬 잘 들리게 연주
음악의 신 (M)	<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활을 길게 써야 예쁜 소리가 난다. 음정을 제대로 맞추어야 한다.	<8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합주를 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맞추어야 한다. 활도 다 같이 맞추어야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맞추어야한다. 쉬는 동안 발 작자로 세지 말고 마음속으로 센다.
편안한 바이올린 (N)	<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온화 쓰기 활털 풀어서 보관하기	<8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처음과 끝이 같아야한다. 쉼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활이 똑같아야한다.
음악 (O)	<1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어깨 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손목 펴기	<7차시 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피치카토는 손가락으로 튕겨서 연주한다. ·pizz, arco

학생 A는 박자와 음정, 음악적 표현 모두 표현적 글쓰기로 지식을 정리하고 연습에 적용하면서 인지적 영역의 향상을 보였다. 8차시 수업 후 면담에서 글로 써보고 연습하니 훨씬 이해가 잘 되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다.

학생 B는 습득한 지식을 정리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박자와 음정, 음악적 표현이 표현적 글쓰기 수업 전의 실력과 비슷하고 자신이 적은 학습 요소들을 연습에 적용하지 못했다.

학생 C는 활동지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편이다. 하지만 6차시 수업부터 학습 요소에 대해 생각해보고 레슨 내용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박자와 음정, 음악적 표현을 정확하게 연주 하였다.

학생 D는 쓰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기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8차시를 하

는 동안 박자와 음정, 음악적 표현에 대한 자신만의 글을 쓰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인지적 영역의 향상은 볼 수 없었다.

학생 E는 음정과 박자, 음악적 표현에 대해 정확하게 쓰고 싶어 했고 음악 이론을 적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단순히 적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레슨 내용에 대해서 교사가 한 말을 괄호를 사용해 적기도 하고 연습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여 인지적 영역이 향상되었다.

학생 F는 글로 표현해 내지는 못했지만 글로 쓰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음악적 표현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음정과 박자를 일관적으로 지켜서 연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음악적 표현을 잘해보려는 노력을 보였다. 마지막 수업 후 면담에서 박자나 음정이 틀리는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인식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학생 G는 1차시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학습에 대한 내용을 적었다. 각 차시마다 배운 학습 요소들을 적고 기억하기 위해 악보에 표시하며 연습의 능력을 높였다. 표현적 글쓰기 수업 시작 전의 면담에서 음악 이론이 어렵다고 대답한 학생 G는 마지막 면담에서 음표 이름과 음길이는 몰라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난 후 악보 읽는 것이 재미있어졌다고 대답했다.

학생 H는 음정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레슨 내용은 늘 같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표현적 글쓰기 수업으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교사가 해주는 조언에도 나아지지 않던 음정에 대한 개념들이 스스로 글로 쓰고 또 매차시마다 반복이 되니 음정이 틀렸음을 느끼고 다시 연주해보는 행동을 보였다.

학생 I는 기본적인 음악 이론을 잘 모르고 본인의 감에 의존하여 연주를 해왔다. 2분음표를 2박으로 잘 연주해왔던 학생이지만 글로 쓸 때는 음표의 이름을 몰라서 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활동지를 작성하였다. 박자와 음정, 음악적 표현에 관한 음악 용어들을 알게 되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였고 연주

에도 잘 적용하였다.

학생 J는 바이올린 실력이 높은 편으로 수업에 여유를 갖고 있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실력에 비해 언어적 표현이 부족하여 자신이 무엇을 연습해야 하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했다.

학생 K는 박자 개념이 부족했는데 레슨을 하며 배운 것들을 교사와 확인하며 적는 활동으로 박자를 인식하고 틀린 부분을 알게 되었다. 인지적 영역이 향상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 L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잘 모르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업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으니 많은 것을 적는 것이 아니더라도 큰 변화가 있었다. 임시표나 활 방향을 맞추는 것은 안중에도 없던 것이었지만 조금씩 의식하여 연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 M은 교사가 지도한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하는 학생이었다. 박자를 세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적으며 일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학생 M은 표현적 글쓰기를 잘 활용한 학생으로 쓰는 것이 귀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신경 쓸 것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편했고 연습하면 자신이 쓴 것이 생각이 났다고 대답하였다.

학생 N은 길게 적어내지는 못 했지만 자신이 쓴 것을 들고 와서 음표 이름을 물어 보기도하고 기억하려고 다시 입으로 말해보기도 하면서 박자와 음정, 음악적 표현에 향상을 가져왔다.

학생 O는 표현적 글쓰기 수업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다. 활동지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인지적 영역의 향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인지적 영역의 발전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2명의 학생의 활동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생 H의 활동지 1번은 <그림5-2>와 같다.

{ EXO 밋집 의 활동일기 }	
1 차 시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털을 풀고 보관한다. · 음정 간격 맞춰서 누르기 · 박자표 맞춰 소리낸다 · 활털을 줄에 붙여서 소리내야 소리가 좋아진다. · 손목을 펴고 연주하기
4 차 시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6분음표 점음표를 정확하게 연주해야 한다 · 엄지손가락 뒤로 가고 전부 낮게 누르기
5 차 시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조는 조표가 바뀌는 것이다. · 누르는 자리도 달라진다 ※ 시플렌 하고 파하고 같은 자리에 누르기 </div>
6 차 시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치 카토 · 피치카토 할때도 음정 확인 하기

<그림5-2> 학생 H의 인지적 영역 활동지 자료

<그림 5-2>와 같이 H 학생은 손이 작아서 바이올린 운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틀린 음정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있었다. 하지만 위의 그림에 표시한 것처럼 매 차시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적고, 그것을 눈으로 보며 잘못 된 음정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부터 바른 음정으로 소리를 내지는 못했으나 손가락의 위치를 옮겨 다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H 학생이 본 연구의 수업으로 인지적 영역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또 학생 K의 활동지를 살펴보면 매 차시마다 자신의 학습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로 인해 K 학생의 학습 과정을 교사가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을 고쳐 줄 수 있었고, K 학생은 음표의 음길이에 맞게 소리 내었다. K 학생의 활동지 1번은 <그림5-3>과 같다.

{ 클래식 연주회 의 활동일기 }	
1 차 시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을 길게 써야 예쁜소리가 남. · 음정을 제대로 맞춰야 함 · 바이올린을 잡을 때 손목을 90°로 직각을 만들어 연주해야 함 · 활의 힘을 배야함
2 차 시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p>이상은 그 한 마디안에서만 쓴다. 다음 마디에서는 쓸수가 없다. (손# → 3번↑)</p> 허리와 가슴을 펴고 악기를 들어야지 턱이 아프지 않으며 악기로 바르게 배울수 있다.
4 차 시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p>음분음표와 16분음표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음분음표를 한 박으로 쓴다. 보정 정확히 연주하기. 수능 마디 잘 쉬어서 나오기.</p> ♪.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기여야 한다.
6 차 시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치카토 (pizz. 즉임으로 표시한다) → 손가락을 튕겨 연주하는 것이다 → 검지 손가락의 식점으로 튕겨야 한다 · 아르코 → 대시 표시 연주해야 한다 · 활땀이 많이 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림5-3> 학생 K의 인지적 영역 활동지 자료

이렇게 15명의 인지적 영역은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글로

쓰는 활동 자체가 국어 수업의 연장선처럼 부담을 느껴 적응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인지적 영역의 향상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몇몇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접해 보지 못한 수업 방식에 잘 적응하였다. 참관한 교사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초반의 1, 2, 3차시까지는 활동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4차시부터는 교사가 말에 집중하고 곧바로 적거나 악기를 만지는 등 직접적인 반응이 보였다고 한다. 또 음정과 박자에 민감해졌고 몸으로 습득하기 전에 머리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다고 하였다.

3. 정의적 영역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정의적 영역에 관한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정의적 영역을 흥미와 태도, 언어적 표현력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5-4>와 같다.

<표5-4> 정의적 영역의 내용

정의적 영역	내 용
흥미	·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흥미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흥미
태도	·표현적 글쓰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바이올린 레슨과 연습에 적극적인 참여
언어적 표현	·표현적 글쓰기의 특징에 따라 자기표현에 집중하여 쓰기

학생들이 표현적 글쓰기 활동으로 내면세계의 변화가 있어야 바이올린 연주의 동기 부여가 되고 활동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정의적 영역의

향상은 단순 느끼는 것을 넘어서 가치화 하기 위함이다. 정의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해보는 2번 문항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매차시마다 다른 모습을 보였으므로 학생 개개인 별로 변화된 차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활동지 내용은 <표5-5>와 같다.

<표5-5> 정의적 영역 분석 자료

학생	활동지 결과물	
매력있는 콩나물 (A)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재미있다. 멜로디가 흥미롭다.	<6차시 소중한 것에 대하여 쓰기> 쉬는 시간에 먹는 간식 간식을 안 먹으면 우울하다.. 피곤한거 같기도 하다. 엄마, 엄마는 내편이니까.
비싼 광화문 (B)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제목이 우편마차여서 그런지 무섭게 생긴 택배 아저씨가 생각났다. 운전은 너 무 험하게 해서 사고가 날 것 같다.	<6차시 소중한 것에 대하여 쓰기> 자전거야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멀리까지도 쉽게 데려다줘서 고마워 흠집 났다고 바꿀 생각해서 미안해 오래 같이 지낸 만큼 앞으로도 잘 지내자.
오선지 (C)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마차가 달리는듯한 느낌이다. 박자가 빨라서 실제로 연주하면 신날 것 같다. 멜로디가 익숙한 곡이라 들으면서 흥미 롭고 신났다.	<6차시 소중한 것에 대하여 쓰기> 틴트♡ 안 바르면 허전하고 아파 보인다. 생일선물로 친구가 선물해주었다.
갈색바흐 (D)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여러 악기 소리가 틀린다. 빨리 연주하 니까 신나 보인다.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6차시 소중한 것에 대하여 쓰기> 친구들 친구들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다.
춤추는 바이올린 (E)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마차가 빨리 달리는 모습이 연상된다. 바이올린만 연주하는 것보다 더욱 생동 감 넘친다. 곡이 빨라서 연주하기가 어 려울 것 같다. 제목이 우편마차여서 그 런지 편지를 빨리 배달해야 할 것 같은 긴박함이 느껴진다.	<6차시 소중한 것에 대하여 쓰기> 복동이 복동이는 우리 가족이다. 11년 동안 내 동생 같았다. 지금은 없어서 더 허전하 고 보고 싶다.

학생	활동지 결과물	
피아노 신난다 (F)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쫓기는 느낌이다. 합창곡으로 들어보고 피아노로는 쳐봤는데 바이올린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6차시 소중한 것에 대하여 쓰기> 닌텐도 -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이다.
옥타브 귀요미 (G)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빠르고 경쾌하다. 마차가 달리는 것 같다.	<4차시 편지 쓰기> 쌤 이곡을 감상하고 선생님이 생각났어 요ㅋㅋㅋ 우리 레슨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제가 3학년 때까지 바이 올린 할 테니까 쌤도 저희를 가르쳐 주 시옵소서 선생님의 기도로 시험 잘 봤 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나와서 열심히 레슨 받고 가는 제가 자랑스럽군요! 아! 그리고 선생님 아이 러브 유!!
EXO 멋짐 (H)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명랑하고 쾌활한 느낌이 들었다. 숲속의 요정들이 생각났다.	<4차시 편지 쓰기> 엄마 아빠 일 하시고 들어와 집에서 집안일 하 시느라 힘드시죠.. 빨리 커서 효도 할게 요. 감사합니다.
베토벤 코딱지 (I)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빠르다. 관악기 소리가 많이 들린다. 마차가 달리는 느낌이다.	<4차시 편지 쓰기> TO. 바이올린 쌤 일학년 때는 거의 못했는데 이학년 때 는 연습 열심히 해서 하는 척만 안하고 진짜로 할게요. ㅋㅋㅋ 일학년 때는 열 심히 안했는데 이학년 때는 열심히 할 게요. 삼학년 때도 열심히 할게요!
박자 (J)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팔분음표가 많아 빨랐다. 마치 마차가 달리는 기분이 들었다. 음표마다 쉽표 가 나와서 딱딱 맞아 각?이 있어 멋있 었다.	<4차시 편지 쓰기> 유진t~ 맨날 우리 레슨, 줄 맞추어 주셔서 감 사합니다. ~ ♡ 3학년까지 같이 가요~♡
클래식 연주회 (K)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장난감 병정이 행진하는 느낌이 든다. 장난스럽기도 하고 가볍고 경쾌한 걸음 걸이가 느껴진다.	<6차시 소중한 것에 대하여 쓰기> My Boy friend ♡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반쪽이니까^^

학생	활동지 결과물	
ㄷㅎ ♡ ○츠 (L)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처음에 악보 봤을 때 보다 멜로디를 듣는게 더 재미있었다. 박자는 빠르는데 조금 슬픈? 우울한 느낌을 받았다. 도망치는 것 같다.	<4차시 편지 쓰기> To. 엄마 엄마가 동생들만 챙기는 거 같아서 서운했는데 이번에 큰딸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용♡
음악의신 (M)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곡이 빠르며 군대에서 군인들이 같이 걸음을 맞추어 걸어가는 상상을 하게 된다.	<4차시 편지 쓰기> to. oo이 oo아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같이 있어주어서 고마워 시험기간 때에도 내 고민 다 들어주기도 하고.. 고맙다. 널 만난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 우리 대학교도 같이 가고 결혼해서도 사이좋게 지내자!
편안한 바이올린 (N)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달리기 경쟁하는 것처럼 들린다.	<4차시 편지 쓰기> 부모님께 부모님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O)	<2차시 우편마차 감상문> 곡이 빠르당. 연주하면 재미날 것 같다.	<6차시 소중한 것에 대하여 쓰기> 블락비, 개판오분전 본방 내 삶을 채워주는 활.명.수.갈.은.존.재.랄.까?

학생 A는 수업 전 면담에서 글쓰기 수업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글쓰기 수업에 흥미를 느끼며 표현적 글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바이올린 수업 자체의 흥미도 향상되었다. 학생 A는 마지막 수업 후 면담에서 연습도 하고 활동지도 써야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뿌듯하다고 말하였다. 학생 A는 흥미와 태도, 언어적 표현에 적극적이었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에 자신감을 보였으므로 정의적 영역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 B는 흥미와 태도, 언어적인 표현이 이전의 수업 때 보다 향상되었다.

또 평소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 학생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바로 적으며 언어적 표현을 즐겼고 표현적 글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생 C는 표현적 글쓰기를 즐기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였다. 6차시의 소중한 것에 대해 쓰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쓰면서 웃고 연습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체적인 수업의 흥미와 태도에서도 정의적 영역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주에서도 확실하게 차이가 보였고 활로 소리를 표현할 때 자신감이 있었다.

학생 D의 정의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과 같은 모습이었다. 수업에 참여를 하지만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고 2줄 이상 글을 쓰지 않았다. 글쓰기 활동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고 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어 정의적 영역의 향상으로 볼 수 없다.

학생 E는 15명의 학생 중 가장 바이올린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지만 반대로 글쓰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 학생이다. 강제적인 바이올린 개인 레슨으로 음악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글쓰기 수업을 매우 좋아했고 테크닉보다 부족했던 소리 표현과 흥미, 태도 면이 성장하였고 정의적 영역이 향상되었다.

학생 F는 표현적 글쓰기 활동을 좋아했고 수업의 흥미가 수업의 집중도를 높여주며 좋은 수업 태도를 불러왔다. 학생 F는 수업 후 면담에서 전에 레슨 할 때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났는데 활동지에 적혀있으니 뿌듯하다고 말하였다.

학생 G는 유일하게 4차시의 편지쓰기 시간에만 적극성을 보였다. 기능적인 면에 많은 노력을 하는 G 학생은 표현적 글쓰기 활동으로 수업의 흥미와 태도, 언어적 표현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 평소 수줍음이 많은 이 학생은 표현적 글쓰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고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학생 H는 몸집이 작고 악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음정이 불안정한 채로 1년을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였다. 하지만 연주를 할 때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마음으로 연주해보라고 했을 때 이전의 연주와 차이를 보였다. 악기가 맞지 않아서 연주하는데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신 있게 연주했고 연주를 잘해 보고 싶어 하는 욕심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 I는 표현적 글쓰기 수업에 흥미를 느꼈고 활동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학생이다. 그림으로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하고 4차시의 편지 쓰기 시간에도 활동지를 꾸미는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흥미를 시작으로 연주에 집중하며 기초적인 실수를 줄이게 되었다.

학생 J는 글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 감상하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표현하려는 시도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수업 태도와 흥미도 높아지지 않았다.

학생 K는 표현적 글쓰기 수업에 적응한 뒤로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먼저 찾아서 생각하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이었다.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수업 순서에 따라 잘 참여하여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학생 L은 표현적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성장하였다. 자리 이탈을 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며 15명의 학생들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 학생의 경우 초반의 수업에서는 교사가 활동지를 읽어보는 것을 싫어했으나 나중에는 교사가 활동지에 남기는 쪽지를 기대하고 교사가 조언해 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로 인해 수업에 관심이 생긴 것으로 보여 진다.

학생 M은 인지적 영역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정의적 영역에서는 표현적 글쓰기로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이전의 수준과 비슷한 모습이였다.

학생 N은 인지적 영역에서와 같이 정의적 영역에서도 발전을 보였다. 우선 활동지를 써야하기 때문에 학원 숙제를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 후 면담에서 학생 N은 연습만 할 때는 연습 시간이 지겨웠는데 활동지를 쓰면서 덜 지루했다고 대답했다.

학생 O는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쓰기 수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수업에 제대로 참여 하지 않았다. 그래서 표현적 글쓰기로 정의적 영역이 향상되었는지 분석 할 수 없었다.

정의적 영역의 발전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2명의 활동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생 E의 활동지 2번은 <그림5-4>와 같다.

2 차 시	<p>2. (우편마차) 감상문 쓰기</p> <p>마차가 빨리 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비이동권만 연결하는 것보다 더욱 생동감 넘친다. 곡이 빨라져 연결부가 어려울 것 같다. 제유이 우편마차여서 그런지 편지를 빨리 배달해야 할것 같은 긴박감이 느껴진다.</p>
5 차 시	<p>2. 지난 수업의 편지 고쳐 쓰기 (짧게 표현된 문장을 보충하여 자세하게 표현하고 단어를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로 바꾸어봅시다.)</p> <p>엄마에게 어제 별일아닌일과 말대답해서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짜증내면서 많하게 화났어요. 저도 앞으로 학원 안바치고 잠잠내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좀 더 복제견한 딸이 될게요.</p>
6 차 시	<p>2. 여러분이 소중한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봅시다.</p> <p>- 복동이 복동이는 우리 가족이다. 11년동안 내랑생 기쁨이다. 집은 없어서 더 허전하고 보고싶다.</p>
8 차 시	<p>2. 랑주 소감쓰기</p> <p>혼자생는게 얼마나 수줍건지 깨달았다. 같이하니까 신경쓸게 너무 많다. 특히, 옆에 애가 빨라지면 나도빨라지고 그러면서 실수를 하게되였다. 그래도 한가지 좋은 점은 같이 들리니까 덜 창피하웠다.</p>

<그림5-4> 학생 E의 정의적 영역 활동지 자료

<그림 5-4>와 같이 E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바이올린 부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교사와 부원들과의 관계에 적극적이지 못했고 혼자 앉아있기만 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E 학생이 바이올린을 잘하는 것을 알고 활동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이니 자신도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언어적 표현에서도 자신의 공개영역을 가장 많이 보여주었고 연주에도 적용되었다. 또 학생 L의 경우에는 평소 산만한 모습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글쓰기를 하면서 수업 내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L 학생의 활동지 2번은 <그림5-5>와 같다.

2 차 시	<p>2. (우편마차) 감상문 쓰기</p> <p>처음에 악보봤을 때보다 멜로디를 듣는게 더 재미있었다. 박자는 빠르는데 조금 슬픈? 우울한 느낌을 받았다. 도망치는 것 같다.</p>
4 차 시	<p>2. (유레이즈미업) 감상 후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p> <p>To. 엄마</p> <p>엄마가 동생들만 챙기는거 같아서 서요했는데 이번에 큰딸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요♡</p>
6 차 시	<p>2. 여러분이 소중한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봅시다. 치킨.</p> <p>언제먹어도 맛있었다. 식어도 맛있었다. 후라이드가 제일 맛있었다. 우리가족이 좋아한다. 다들 스트레스가 풀린다.</p>
8 차 시	<p>2. 합주 소감쓰기</p> <p>처음엔 하나도 안맞고 웃겼는데 한번 두번 할수록 맞는 느낌이었다. 옆사람 보면서 하나씩 더했길래 ㅋㅋ 그래도 실제로 하려면 계속 연습해야 한당~ 맨날 틀리는데를 편주때는 잘하고싶다!</p>

<그림5-5> 학생 L의 정의적 영역 활동지 자료

참관 교사의 의견으로는 학생들이 표현적 글쓰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연주에 대한 흥미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흥미와 연결되어 수업의 적극성도 함께 높아졌다고 말하였다. 수업 태도에 대해서는 초반의 몇 차시 동안에는 글쓰기 하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났고 수업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또 학생들은 교사가 활동지를 검사한다는 부담스러움을 보였지만 3차시 이후로 교사가 자신의 것을 읽었는지 궁금해 했고 활동지에 붙은 메모지를 친구들과 읽어보며 교사의 관심을 즐기는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4. 심동적 영역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에서 학생들의 심동적 영역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왼손과 오른손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연주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심동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활동지 3번 문항의 자기, 상호 평가 부분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매차시마다 각자 다른 모습을 보였으므로 학생 개개인 별로 변화된 차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5-6>과 같다.

<표5-6> 심동적 영역의 내용

심동적 영역	내 용
왼손	연주에 필요한 왼손의 모든 연주 기능 예) 왼쪽 손목을 펴고 악기 잡기
오른손	연주에 필요한 오른손의 모든 연주 기능 예) 활을 잡는 바른 손 모양

학생들이 표현적 글쓰기 활동으로 자기평가와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연

주 자세와 연주 기능이 향상되었다. 심동적 영역에서는 음악적 표현을 위해 신체 조절하며 연주를 할 수 있는지 보고자하였다. 수업 초반에 학생들은 교사가 예시로 제시한 심동적인 부분만을 글로 서술하였다. 하지만 차시가 진행될수록 인지적 요소들을 더해 서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3번 문항에서는 심동적 영역을 보고자 했으나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이 향상되면서 인지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 3번 문항의 내용은 <표5-7>과 같다.

<표5-7> 심동적 영역 분석 자료

학생	활동지 결과물	
매력있는 콩나물 (A)	<p><1차시 자기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 밑부터 끝까지 활을 다 쓰려고 했다. ·왼손 손목을 곧게 폈다. ·음정 테이프에 꼭 맞게 눌렀다. 	<p><6차시 자기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치카토를 할 때 손에 있는 살로 튕기는 소리의 울림이 더 커졌다. 귀가 아팠다ㅋㅋㅋ ·아르코로 바뀔 때 활이 빨리 오지 않았다. 팔이 무겁다.
비싼 광화문 (B)	<p><1차시 자기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왼손 손가락 세워서 누르기 ·음정 테이프에 꼭 맞게 누르기 	<p><5차시 자기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은 불편하지만 왼쪽 손가락을 세워서 짚으려 노력했어요. 음음표 끝까지 쓸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선지 (C)	<p><1차시 자기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정확한 음정으로 소리내기 	<p><7차시 자기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왼손 손목을 곧게 펴는 게 참 힘들다. ·내 손목은 늘 튀어나와 있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자세로 돌아오는 게 힘들다. 피치카토는 살로 잘 튕겨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음♡
갈색 바흐 (D)	<p><1차시 자기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왼손은 잘했다. ·활을 바른 손 모양으로 잡았다. ·열심히 했다. 	<p><7차시 자기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왼손 중에서 4번 손가락이 이상했다. ·라솔라솔이 빨리 안 움직인다. 피차카토는 재밌었는데 소리가 더 커야 된다.

학생	활동지 결과물	
춤추는 바이올린 (E)	<p><1차시 자기평가></p> <p>어깨 높이만큼 악기를 올렸다. 왼손 손목을 곧게 폈다.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았다.</p> <p>팔로 악기를 들지 않고 어깨와 턱으로 들었다.</p>	<p><3차시 자기평가></p> <p>어깨 높이만큼 악기 올리기를 했지만 팔이 아파서 자꾸 내려간다...ㅠ 악센트는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 A선에서 E선으로 바꿀 때 자꾸 다른 소리가 난다. 활을 바른 손 모양으로 잡는 것과 왼손 손목 곧게 펴기는 이제 익숙하다.</p>
피아노 신난다 (F)	<p><1차시 자기평가></p> <p>왼손 손가락 세워서 누르기</p>	<p><5차시 자기평가></p> <p>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었다.(손가락에 자국이 남음 --)</p> <p>슬러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p> <p>쉬는 마디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p>
옥타브 귀요미 (G)	<p><1차시 자기평가></p> <p>왼손 손가락 세워서 누르기. 활 밑부터 끝까지 활 다 쓰기. 왼손 손목 곧게 펴기. 음정 테이프에 꼭 맞게 누르기.</p>	<p><6차시 자기평가></p> <p>①어깨 높이만큼 악기 올렸다.</p> <p>②왼손 손목 곧게 펴는 것을 잘 못했다.</p> <p>③부드러운 소리를 못 냈다.</p> <p>④활을 바른 손으로 잡지 못한 것 같다.</p> <p>⑤점음표 박자 정확하게 연주 못했다.</p>
EXO 몇집 (H)	<p><1차시 자기평가></p> <p>음정 테이프에 꼭 맞게 눌렀다. 활 밑부터 끝까지 활 다 쓰기</p>	<p><6차시 자기평가></p> <p>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았다.</p> <p>온음표 온화 쓰기 했다.</p> <p>섬표에서 소리 내지 않기 하였다.</p> <p>음정 자주 확인하기</p>
베토벤 코딱지 (I)	<p><1차시 자기평가></p> <p>바이올린에 끼는 거 제대로 킴 왼손 손목 바이올린에 안 붙이기 음정 테이프에 꼭 맞게 누르기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활 다 쓰기</p>	<p><4차시 자기평가></p> <p>어깨높이 만큼 악기를 올려야하는데 안올려서 금요일에는 올려야겠다. 또 점음표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서 연주 해야겠다.</p>
박자 (J)	<p><1차시 자기평가></p> <p>어깨 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왼손 손목 곧게 펴기.</p>	<p><6차시 자기평가></p> <p>왼손 손목을 곧게 펴서 연주 했다.</p> <p>온음표 온화 쓰기를 잘했다.</p>

학생	활동지 결과물	
클래식 연주회 (K)	<1차시 자기평가> ·팔로 악기 들지 않고 어깨와 턱으로 들기 ·책상과 벽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펴기	<6차시 자기평가> 오늘은 피치카토를 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쉼표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연주 할 수 있었어요.
♩ ♡ ○츠 (L)	<2차시 자기평가> 활을 똑바로 잡았다. 줄 바꿀 때 백사리가 난다. 악센트도 백사리가 난다.	<4차시 자기평가> 활을 바로 잡았다.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감 → 백사리 활 떨림 → 온음표 할 때
음악의신 (M)	<1차시 자기평가> 1. 책상과 벽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펴기 2. 활 밑부터 끝까지 활 다 쓰기	<7차시 자기평가>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위해 힘을 꼭 눌러보았다. 그리고 이제 쉼표에서 소리 내지 않는 것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편안한 바이올린 (N)	<1차시 자기평가> 어깨 높이만큼 악기를 올렸다. 음정 테이프에 맞게 눌렀다. 책상과 벽에 기대지 않고 허리도 폈다.	<6차시 자기평가>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으니 손끝에 자극이 남아 아팠지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칭찬 받았다. 활을 바른 손 모양으로 맞으니 온활이 더 잘 써졌다.
음악 (O)	<1차시 자기평가> 왼손 손가락 세워서 누르기 음정 테이프에 꼭 맞게 누르기	<6차시 자기평가> 아르코를 준비했다. 왼손 손목 곧게 폈다.

학생 A는 자신이 바른 자세로 연주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를 구별하여 자기 평가를 하였고 다음 수업 시간에 읽었을 때 지난 수업의 자신이 떠오를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로 인해 학생 A는 왼손 손목을 잡고 연주하는 습관을 고치며 심동적 영역이 향상 되었다.

학생 B는 심동적 영역이 표현적 글쓰기로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글쓰기 활동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이 크고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붙잡고 훈련시키는 방식의 수업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연습하는 수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다.

학생 C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원했던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였고 왼손 손목을 뒤로 꺾는 습관을 고치며 심동적 영역이 향상되었다.

학생 D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7차시의 자기평가에서 연구자가 유도한대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학생 D는 8차시 수업 후 면담에서 자신이 글로 쓰고 나니 다음 수업을 시작할 때 전 수업의 자신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왼손의 4번 손가락과 오른손의 활 잡는 모양이 발전하여 심동적 영역이 소폭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 E는 8차시 수업 후 면담에서 연습과 활동지를 동시에 하기 힘들고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하게 쓰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학생 E의 심동적 영역은 글로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을 뿐 실제 수업에서는 수업에서 배운 운동 기능들을 모두 잘 소화했으므로 심동적 영역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학생 F는 심동적 영역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5차시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글로 표현해 냈지만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점과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신체적 운동 기능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 G는 수업에서 배운 직후에 생각을 잘 정리하였고 연습할 때에도 적용하여 연습하려고 노력했다. 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자기평가가 잘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학생 G는 연주 기능이 한층 성장되었다.

학생 H는 3번 문항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 평가를 언어적 표현으로 이루어내지 못했고 자기반성으로도 이어지지 못했다. 손가락이 짧아 음정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노력하였으나 변화되지는 못했다.

학생 I는 3번 문항의 예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낸 자기평가 요소를 만들어냈다. 그로 인해 수업 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연주에 필요한 운동 기능을 적절하게 습득하였다.

학생 J는 3번 문항에서 다음 수업의 다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자기반성

과 달리 연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표현적 글쓰기로 인해 심동적 영역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학생 K는 E 학생과 같이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 집중해 3번 문항까지 해 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3번 문항의 내용이 대부분 예시와 같았다. 하지만 글로 자세하게 표현 되지 못했을 뿐 자기반성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어떤 것을 노력해야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연주 기능이 향상되었으므로 심동적 영역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L은 한 가지에 집중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반성한 결과,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 학생은 활로 소리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거듭된 자기평가로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 한숨을 쉬어본다던지 팔을 털어보는 등의 연습 과정을 글로 적으며 심동적 영역이 향상되었다.

학생 M은 자기평가를 열심히 작성했지만 잘 못된 손 모양을 바르게 바꾸지 못했다. 반성과 연습의 부족으로 판단되고 꾸준히 진행 된다면 충분히 향상 가능성이 있다.

학생 N은 6차시에서 제대로 된 자기평가가 나왔지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심동적 영역이 향상되지 못했다. 활동지를 열심히 해보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수업의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반성적 사고를 할 기회가 부족했다.

학생 O는 수업 초반에 참여를 하다가 수업이 끝날 쯤에는 집중력을 잃고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해 자기평가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심동적 영역의 향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심동적 영역의 발전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2명의 활동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생 I는 자기 평가와 동시에 반성을 하며 다음 수업의 다짐을 보였다. 그 결과 사소한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였다. 학생 I의 활동지 3번은 <그림5-6>과 같다.

1 차 시	<p>3. 오늘의 나는 어땠나요? 어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 왼손 손가락 세워서 누르기 • 왼손 손목 곧게 펴기 •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누르기 • 음정 테이프에 꼭 맞게 누르기 •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 오른손 엄지손가락 굽히기 • 활 밑부터 끝까지 활 다 쓰기 • 활털과 줄을 밀착시켜 울리는 소리 내기 • 팔로 악기 들지 않고 어깨와 턱으로 들기 • 책상과 벽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펴기 </div> <p>바이올린에 끼는거 제대로 깎 </p> <p>왼손 푼목 바이올린에 안 붙이기</p> <p>음정테이프에 꼭맞게 누르기 </p> <p>활바른손 모양으로 잡때기 </p> <p>활다쓰기 </p>
3 차 시	<p>활은 바른손 모양으로 맞잡았다.</p> <p>슬러를 부드럽게 꼬내야한다.</p> <p>바이올린은 어깨높이 만큼 돌려야한다.</p>
4 차 시	<p>어깨높이 만큼 악기를 돌려야하는데 안들려서 굽은것은 돌려야겠다.</p> <p>그리고 바이올린에 끼는거를 반대로껴서 제대로 끼야겠다.</p> <p>또 점음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서 연주해야겠다.</p>
7 차 시	<p>• 피쳐카도 활을 들은 하느기 힘들었다. (활을 놓칠것 같았다.)</p> <p>• 악상 기호? 매박에 도리를 꼬일 하는것도 어려웠다.</p> <p>• 모든말을 다피쳐서 연주 하다보니 편해졌다. (음표)</p>

<그림 5-6> 학생 I의 심동적 영역 활동지 자료

학생 E는 활동지 3번 문항의 의도를 잘 이해하였고 표현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를 잘 해주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세하게 표현하면서 다음 수업에서 지난 수업을 쉽게 회상하였다. 또 글을 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의견을 내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글로 자세하게 표현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E 학생의 심동적

영역은 <그림 5-7>과 같이 표현적 글쓰기로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1 차 시	<p>3. 오늘의 나는 어땠나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 왼손 손가락 세워서 누르기 • 왼손 손목 곧게 펴기 •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누르기 • 음정 테이프에 꼭 맞게 누르기 •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 오른손 엄지손가락 굽히기 • 활 밑부터 끝까지 활 다 쓰기 • 활털과 줄을 밀착시켜 울리는 소리 내기 • 팔로 악기 들지 않고 어깨와 턱으로 들기 • 책상과 벽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펴기 </div> <p>어깨높이만큼 악기를 올렸다. 왼손 손목을 곧게 펴었다.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았다. 팔로 악기 들지 않고 어깨와 턱으로 들었다.</p>
3 차 시	<p>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를 했지만 팔이 아파서 자꾸 내려간다 ... ㅠ 악세트는 자꾸 악어비리게 된다. A선에서 E선의 바깥 때 자꾸 다른 소리가 난다. 활을 바른 손 모양으로 잡는 것과 왼손 손목 곧게 펴기는 이제 익숙하다.</p>
4 차 시	<p>느러는 부드럽게 연금에서 소리내며 하는데, 다른 줄을 건드린다. 손뿔을 깎지 않아서 손가락 세우기가 어려웠다. 댄서와 16분음표들을 다르게 연금시키는 게 힘들다.</p>
5 차 시	<p>왼손 손가락 세워서 깎지 왼손 활 천천히 쓰기 바이올린이 두는 마디 확실하게.</p>

<그림 5-7> 학생 E의 심동적 영역 활동지 자료

참관한 교사의 말에 따르면 심동적 영역은 이 바이올린 부 학생들의 수준으로는 스스로 향상시키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다. 반성에 의해 연습의 동기 부여가 되고 연주 기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였으며 부원의 반 이상이 향상되었으므로 성공적인 수업이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3번 문항을 쓰면서 어려워했지만 작성 시간이 길수록 좋은 내용이 나오고 연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하였다.

5. 결과 요약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개인의 차이를 보이며 각 영역이 다르게 향상되었다. 학생들이 각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별로 각 영역의 결과를 종합해 <표5-8>에 정리하였다.

<표5-8> 학생별 각 영역의 결과

학생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매력있는 콩나물 (A)	지식을 글로 정리하면서 연습에도 적용하였다.	활동지를 쓰니까 뿌듯하다고 하였고 연주하는 것에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수업의 자신이 떠오를 만큼 표현적 글쓰기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비싼 광화문 (B)	표현적 글쓰기 수업 전후의 실력이 비슷했다. 자신이 적은 학습 요소들을 연습에 적용하지 못했다.	언어적 표현을 즐겼고 표현적 글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노력하고자 하였으나 글쓰기 활동에 충실하지 못했고 스스로 생각하고 연습하는 수업을 어려워했다.
오선지 (C)	6차시부터 학습 요소를 생각하고 레슨 내용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박자와 음정, 음악적 표현을 정확하게 연주 하였다.	활로 소리를 표현할 때 자신감이 생겼고 전체적인 수업의 흥미와 태도, 언어적 표현이 성장하였다.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였고 왼손 손목을 뒤로 꺾는 습관을 고쳤다.
갈색 바흐 (D)	쓰는 것을 귀찮게 여겨서 8차시를 하는 동안 박자와 음정, 음악적 표현에 대한 자신만의 글을 쓰지 않았다.	글쓰기 활동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고 전과 비교하여 태도나 흥미의 변화가 없었다.	글로 쓰고 나니 다음 수업 시작 때 전 수업의 자신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왼손의 4번 손가락과 오른손의 활 잡는 모양이 발전하였다.
춤추는 바이올 린(E)	단순히 적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레슨 내용에 대해 괄호를 사용해 적기도 하고 연습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음악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글쓰기 수업을 매우 좋아했고 소리 표현과 흥미, 태도 면이 성장하였다.	연습과 활동지를 동시에 하기 힘들었지만 수업에서 배운 운동 기능들을 모두 잘 소화했다.

학생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피아노 신난다 (F)	글로 쓰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음악적 표현에 도움이 되었고 음악 요소를 표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표현적 글쓰기 활동을 좋아했고 수업의 흥미가 수업의 집중력을 높여주었고 수업 태도가 좋아졌다.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신체적 운동 기능을 자기 것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옥타브 귀요미 (G)	성실하게 학습에 대한 내용을 적었다. 각 차시마다 배운 학습 요소들을 적고 기억하기 위해 악보에 표시하며 연습의 능률을 높였다.	기능적인 면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표현적 글쓰기 활동으로 수업의 흥미와 태도, 언어적 표현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자기평가가 잘 이루어졌다.
EXO 멋짐(H)	음정에 민감하지 못했지만 표현적 글쓰기로 음정에 대해 스스로 쓰니 음정이 틀렸음을 알고 연주하였다.	악기가 맞지 않아 연주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자신 있게 연주했고 연주를 잘해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겼다.	자기평가를 언어적 표현으로 이루어내지 못했고 음악적 표현으로도 이어지지 못했다.
베토벤 코딱지 (I)	음표의 이름을 몰라서 교사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고 박자와 음정, 음악적 표현에 관한 음악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표현적 글쓰기 수업에 흥미를 느꼈고 활동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림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다.	예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 자기평가 요소를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박자(J)	자신이 무엇을 연습해야하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했다.	감상하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표현하려는 시도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수업 태도와 흥미도 높아지지 않았다.	자기반성은 잘 하였으나 연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표현적 글쓰기로 인해 심동적 영역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클래식 연주회 (K)	박자 개념이 부족했는데 레슨을 하며 배운 것들을 교사와 확인하며 적는 활동으로 박자를 인식하고 틀리는 부분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 먼저 찾아 생각하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이었다.	모든 문항을 해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글로 자세하게 표현되지 못했을 뿐 운동 기능은 향상 되었다.

학생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ㄷㅎ♡ ○츠(L)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으니 길게 서술하지 않았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 임시표나 활 방향을 맞추는 것을 조금씩 의식하게 되었다.	가장 많이 성장한 면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는 점이다. 수업 태도의 면에서는 15명의 학생들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 가지에 집중하여 평가하고 반성한 결과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한숨을 쉬어본다던지 팔을 터는 등의 연습 과정을 적으며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음악의 신(M)	박자를 세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적으며 일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이전의 수준과 비슷한 모습이었으므로 표현적 글쓰기로 정의적 영역이 향상되지 않았다.	자기평가를 열심히 작성했지만 자기평가를 통해 잘 못된 손 모양을 몸에 익히지는 못했다. 반성과 연습이 부족했다.
편안한 바이올 린(N)	길게 적어내지는 못했지만 음표 이름을 물어 보기도하고 기억하기 위해 입으로 말해보면서 박자와 음정, 음악적 표현이 성장하였다.	활동지를 써야하기 때문에 학원 숙제를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6차시에서 제대로 된 자기평가가 나왔지만 일회적이었다. 반성적 사고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음악(O)	표현적 글쓰기 수업 방식에 적용하지 못했다. 활동지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었다.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쓰기 수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수업에 제대로 참여 하지 않았다.	수업에 참여를 하다가 수업이 끝날 쯤에는 집중력을 잃고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해 자기평가를 하지 못했다.

학생들 개개인 마다 향상의 차이가 있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표현적 글쓰기 활동을 했을 때가 교사의 조언을 듣기만 했을 때보다 이해가 빨랐다. 또 말로는 전달되지 않았던 감정이나 표현력은 스스로 글로 쓰며 표현하고 음악에 적용해 보면서 향상되었다. 그로 인해 각 영역에서 본인에게 맞는 성장을 하였다. 세 영역이 모두 향상되지 않았던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활동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각 영역에서 다르게 향상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들이 적용되어 표현적 글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VI. 결론

이 연구는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을 구성하고 바이올린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연주 기능과 음악적, 언어적 표현력, 흥미와 태도 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효과적인 바이올린 수업을 위해 8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였고 중학교 바이올린 부 15명에게 적용한 결과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이 박자, 음정, 음악적 표현의 개념을 바르게 서술하였는지 살펴보고 참관 교사의 문서와 학생 면담을 참고하였다. 학생들은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을 통해 새로 배운 학습 요소를 장기적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효율적으로 연습하여 인지적 영역이 향상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을 보기 위해 학생들이 수업의 흥미, 태도, 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동지에 표현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참관 교사의 문서, 학생 면담을 분석하였다.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해주었다. 또 학생들이 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글 쓰는 것을 즐겼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은 학생들의 글은 교사에게 학생들의 내면을 알게 되는 기회를 주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자기표현이 들어간 글쓰기를 하면서 연주 태도와 가치관을 성장시켜 정의적 영역이 향상되었다.

셋째, 학생들의 심동적 영역을 보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연주 기능을 평가한 활동지와 참관 교사의 문서, 학생 면담을 분석하였다.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바이올린 수업은 자기 평가를 하며 학생들에게 반성적 사고를 발전시켰고 연주에 필요한 연주 기능을 익힐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심동적 영역이 소폭 향상 되었고 연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결론적으로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학습 요소를 쓰는 것을 통해 음악 이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 학습 요소들을 연주에 적용하고 자신을 평가해보면서 올바른 연주 기능들을 몸에 익힐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학생들과 깊게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장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변화를 느끼면서 바이올린에 애착심을 갖게 되었고 연주의 자신감과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글쓰기가 지루하고 학문적 학습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어려웠고 몇몇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향상 정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음악 수업에서의 글쓰기는 다른 과의 연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글쓰기의 교육적 효과는 본 논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생들에게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표현적 글쓰기는 글쓰기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고 학생들의 글쓰기 기본 능력과 음악적 표현력을 같이 향상 시켜주었으므로 음악 교육에서 글쓰기를 활용한 다양한 지도 방안이 연구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음악과 교육과정**. 제2011-361호, [별책 12]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09).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 김명순(2002). **표현적 쓰기의 특징과 지도 방향**, 국어교육.
- 김선미(2012). **학문적 글쓰기를 활용한 중등 음악 수업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pp. 125-146.
- 김선민(2008). **학문적 글쓰기의 유형, 구조, 지도 단계**, 한국초등국어교육, pp. 52-82.
- 김훈, 전상록, 최웅, 정금철, 유태수, 남기덕(2005). **인문학 글쓰기**. 서울: 북스힐.
- 노명완, 신헌재, 박인기, 김창원, 최영환, 원진숙, 유동엽, 김은성(2012), **국어교육학개론**, 서울: 삼지원.
- 박영민, 박찬홍, 최숙기, 남가희(2007). **쓰기 치료의 국어 교육적 활용과 기대 효과**, 배달말, pp. 339-366.
- 박인순, 조철기(2009). **지리를 통한 표현적 글쓰기 전략의 적용과 효과**, 중등교육연구, pp. 1-27.
- 서장원(2008). **초등체육수업에서의 글쓰기 유형 및 적용 사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pp. 87-106.
-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파주: 교육과학사.
- 안병섭(2010). **표현력을 키우는 표현 중심 쓰기 교육 방법**. 서울: 월인.
- 여승욱(2010). **표현적 쓰기를 활용한 인문계 고등학생 쓰기지도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임순(2009).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중학생 쓰기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

원대학교 대학원.

이성호(2008).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서울: 학지사.

이용일(1992). **음악교육학 개설**.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이재승(2002).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이지현(2003).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 수업 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혜진(2009). **표현적 글쓰기 교육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이홍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

진동섭, 이운식 김재웅(2014).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경기: 교육과학사.

최숙기(2007). **자기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의 교육적 함의**, 작문 연구, pp. 206-239.

최윤경(2011). **과학수업 정리 단계에서 작성한 초등학생들의 표현적 글쓰기 특성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Tompkins. Gsil E, 이재승 김민중, 구세민, 조지민 율김(2012).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박이정.

Mursell. J.L, M.Glenn, 한국음악교재연구회 번역(1987). **음악교육심리학**. 서울: 세광음악사.

Metzler Michael, 유정애, 이충원, 신기철, 김선희, 최희진, 김훈희, 조남용, 김종환, 문도순 공역(2003). **체육수업 모형**. 서울: 대한미디어.

ABSTRACT

Teaching Method on Expressive Writing Lessons for Music Classes

Kim, You Ji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rmulate teaching methods in an instrumental music lesson based on expressive writing theory and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and to explore how the expressive writing influenced an improvement in students' performing skills, musical and linguistic expressiveness, and interest and attitude, dividing it into the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domains.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reflecting two experts' advices in order to apply the methods especially to violin teaching. Students' performing ability and activity sheets were investigated for eight violin lessons aimed at the middle school second graders which employed the new teaching methods.

From the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concluded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cognitive area,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students depicted correctly the concepts of beat, tune, and musical expression referring to teachers' documents and students' interview. They

sorted out the learning elements acquired in the violin lessons using the expressive writing by writing in their own way. Therefore, this type of lessons made it possible for students to save the concepts mentioned above in the structural form and to apply them into their playing. Consequently, the methods led to improve students' cognitive area.

Second, in terms of affective area, this study looked into how actively the students expressed their interest in and their attitude toward the lessons and their linguistic expression on the activity sheets and scrutinized teachers's documents and students' interview. They showed the better attitude toward performance and the enhanced penchant for music by writing focused on self-expression. Furthermore, they could lighten their burden of writing by expressive writing and have a desire of expression and the ability to understand a song by writing related to the thematic songs. From these, we could conclude that their affective domain was sharpened up.


Third, with regard to psychomotor area, the activity sheet which the students evaluated their performing skills by themselves on, teachers' documents, and students' interview were analyz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students' psychomotor domain was enhanced since the violin lessons using expressive writing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have reflective thinking by assessing themselves and to acquire the necessary skills for their playing.

However, the students who felt burdened by and were not interested in expressive writing activity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lessons actively so any improvement in the domains could not be found.

The designed lessons allowed the students to organize structurally the learning elements in the instrumental music class, to apply them to their performance, and to learn the correct playing skills. This growth contributed to encouraging them to have an attachment for a violin, feeling their changes by themselves and to boosting their confidence in playing and their concentration on a lesson. Thus, it was proved that the instrumental music lesson involving the expressive writing was effective enormously in students'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domains.

[부록1] 지도안


1) 1차시 학습 지도안 「스즈키 2권」

곡명		스즈키 2권 소리 내기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점을 파악하고 바른 자세로 연주할 수 있다. • 음악 마인드맵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음악을 알고 활동지 별명을 만들 수 있다. 		
준비물		바이올린, 활동지	차시	1/8차시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출발점 파악	<p>▶활동지에 대한 설명하기</p> <p>-활동지를 나누어준다.</p> <p>-활동지에 대하여 설명한다.</p> <p>활동지 1번은 수업을 하는 동안 배운 것을 모두 적는다.</p> <p>활동지 2번은 수업마다 다른 다양한 글쓰기를 한다.</p> <p>활동지 3번은 수업을 하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글 속에 자신을 자세하게 묘사하도록 한다.</p>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새로운 학습요소 제시 및 레슨	<p>▶악기 보관법과 온화 사용법</p> <p>-악기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주에도 지장이 있음을 설명한다. 바이올린은 나무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해야한다. 또 연주 후에 활털을 풀어 보관해야 활대가 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p> <p>-온화를 사용하여 좋은 소리를 내도록 지도한다. 온화는 활의 전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 떨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p> <p>-온화로 어느 음에서나 같은 음량을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므로 활이 끝으로 갈 때 지판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개인 레슨</p> <p>-학생 개인의 실력에 맞게 연주 자세를 지도한다.</p>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레슨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다. • 개인 레슨시간 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며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현재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p>▶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p> <p>-학생들이 학습요소를 글로 적으며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단계이므로 배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한다.</p> <p>-학생들이 기록한 것을 유념하여 연습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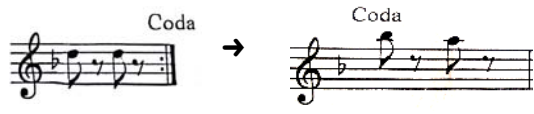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전개	피드백 및 쓰기	<p>▶음악으로 마인드맵 만들기</p> <p>-마인드맵이란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중심 단어에서 파생시키는 것임을 설명한다.</p> <p>-표현적 글쓰기 수업에 앞서 준비 단계에 속하므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파생시키도록 지도한다.</p> <p>-마인드맵을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는 생각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만들어가도록 지도한다.</p> <p>-마인드맵을 완성하고 그 안에서 단어를 선택하여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별명을 만들도록 지도한다.</p>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레슨시간 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며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자기평가	<p>▶자기평가</p> <p>-오늘 자신을 평가하며 다음 수업의 다짐의 기회를 갖는다.</p> <p>-학생들이 자기반성이 충분히 들어간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p>	10분	
평가관점				상 중 하
인지적 영역	학생들이 바이올린 보관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였는가? 학생들이 온화의 개념을 바로 알고 연주하였는가?			
정의적 영역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심동적 영역	학생들이 온화를 쓸 때 팔을 뒤로 빼지 않고 팔꿈치를 폈다가 굽혀 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가?			

2) 2차시 학습 지도안 「우편마차1」

곡명		우편마차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표와 임시표 지키며 연주 할 수 있다. • 표현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우편마차 감상문을 쓸 수 있다. 		
준비물		바이올린, 활동지	차시	2/8차시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출발점 파악	<p>▶지난 수업의 학습요소 확인하기</p> <p>-학생들은 전 차시 활동지를 참고하여 지난 수업의 자신을 돌아본다.</p>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전 개	새로운 학습 요소 제시 및 레슨	<p>▶임시표 설명하기 -임시표는 그 마디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설명한다.</p>  <p>▶개인 레슨 -학생이 학습요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한다. -지난 수업의 활동지를 보며 좋아진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임시표를 잊지 않고 연주하도록 지도한다.</p>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레슨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돕는다. • 개인 레슨시간 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며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현재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p>▶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학생들이 학습요소를 글로 적으며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단계이므로 배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기록한 것을 유념하여 연습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p>		
	피드백 및 쓰기	<p>▶우편마차 관련악곡 감상 후 감상문 쓰기 -표현적 글쓰기의 특징에 따라 감상하며 생각이 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단, 되도록 감상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게 한다. -글 쓰기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글을 쓰는 방법이나 타인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쓰도록 지도한다.</p>		
정 리	자기평가	<p>▶자기평가 -오늘 자신을 평가하며 다음 수업의 다짐의 기회를 갖는다. -학생들이 자기반성이 충분히 들어간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p>	10분	
평가관점				상 중 하
인지적 영역	학생들이 조표와 임시표를 이해하고 연주하였는가?			
정의적 영역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심동적 영역	학생들이 A선에서 E선을 슬러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 오른쪽 팔꿈치를 움직여 연주할 수 있는가?			




3) 3차시 학습 지도안 「우편마차2」

곡명		우편마차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a를 지켜 연주할 수 있다. • 악센트를 살려 연주할 수 있다. • 우편마차의 음악적 표현을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바이올린, 활동지	차시	3/8차시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출발점 파악	<p>▶지난 수업의 학습요소 확인하기</p> <p>-학생들은 전 차시 활동지를 참고하여 지난 수업의 자신을 돌아본다.</p>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새로운 학습요소 제시 및 레슨	<p>▶Coda, 악센트 설명하기</p> <p>-우편마차의 6번째 줄의 마지막 마디의 코다는 곡의 모든 도들이표를 마치고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14번째 줄의 코다로 넘어가 끝난다. 이 곡에서 코다는 곡의 마무리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p>  <p>-악센트는 그 음만 특히 세게 연주한다. 바이올린으로 악센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활을 빠르게 썬다.</p>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레슨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돕는다. • 개인 레슨시간 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며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현재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p>▶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p> <p>-학생들이 학습요소를 글로 적으며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단계이므로 배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한다.</p> <p>-학생들이 기록한 것을 유념하여 연습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p>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전개	피드백 및 쓰기	<p>▶우편마차 감상 후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하기</p> <p>-우편마차를 감상하고 곡과 어울리는 장면을 연상해 본다.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찾아 쓰고 발표해본다.</p> <p>-학생들이 소리나 모습을 단어로 직접 만들어 묘사하게 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작성하게 한다.</p>	80			
정리	자기평가	<p>▶자기평가</p> <p>-오늘 자신을 평가하며 다음 수업의 다짐의 기회를 갖는다.</p> <p>-학생들이 자기반성이 충분히 들어간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p>	10분			
평가관점				상	중	하
인지적 영역	학생들이 코다와 악센트를 이해하고 연주하였는가?					
정의적 영역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심동적 영역	악센트를 표현할 때 활을 빠른 속도로 쓰며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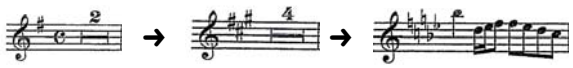
4) 4차시 학습 지도안 「유 레이즈 미 업1」

곡명		유 레이즈 미 업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분음표와 16분음표, 점음표를 정확한 박자로 연주 할 수 있다. • 쉬는 마디를 세어 박자에 맞게 연주 할 수 있다. • 제재곡 감상 후 표현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편지를 쓸 수 있다. 			
준비물		바이올린, 활동지	차시	4/8차시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출발점 파악	<p>▶지난 수업의 학습요소 확인하기</p> <p>-학생들은 전 차시 활동지를 참고하여 지난 수업의 자신을 돌아본다.</p>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전 개	<p>▶8, 16분음표, 점음표 음길이와 쉬는 마디 설명 -8분음표와 16분음표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연주해야한다. 8분음표로만 이루어진 부분은 5음 모두 같은 길이로 연주해야하고 16분음표가 있을 경우에는 8분음표의 반의 길이로 연주해야한다.</p>  <p>-부점이 많이 나오는 곡이므로 점음표의 음 길이를 정확하게 표현해야한다.</p>  <p>-바이올린 파트가 여러 마디를 쉴 경우 숫자로 쉬는 마디 수가 표기되어있다. 쉬는 마디를 세어 바이올린 파트가 나오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연주해야한다.</p>  <p>▶개인 레슨 -학생이 학습요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한다. -학생 개개인의 지난 수업의 활동지를 보며 좋아진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다양한 음표의 음길이를 이해시키고 악보를 읽는데 도움을 준다.</p>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레슨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다. • 개인 레슨시간 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며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현재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p>▶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학생들이 학습요소를 글로 적으며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단계이므로 배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기록한 것을 유념하여 연습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p>		
피드백 및 쓰기	<p>▶유 레이즈 미 업 감상 후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학생들이 곡의 가사를 이해하고 편지를 쓸 수 있도록 가사를 해석한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감상 후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적어보도록 한다. -표현적 글쓰기의 특징에 맞게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끌어내어 적을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주며 지도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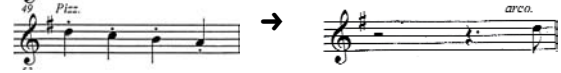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정리	자기평가	<p>▶자기평가</p> <p>-오늘 자신을 평가하며 다음 수업의 다짐의 기회를 갖는다.</p> <p>-학생들이 자기반성이 충분히 들어간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p>	10분			
평가관점				상	중	하
인지적 영역	8분음표, 16분음표, 점음표의 다양한 음길이에 맞추어 연주할 수 있는가?					
정의적 영역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심동적 영역	짧은 음길이의 음표를 연주할 때 활의 방향을 민첩하게 바꿀 수 있는가?					

5) 5차시 학습 지도안 「유 레이즈 미 업2」

곡명		유 레이즈 미 업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조를 의식하여 조표에 맞게 연주 할 수 있다. • 지난 수업의 편지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고쳐 쓸 수 있다. 			
준비물		바이올린, 활동지	차시	5/8차시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출발점 파악	<p>▶지난 수업의 학습요소 확인하기</p> <p>-학생들은 전 차시 활동지를 참고하여 지난 수업의 자신을 돌아본다.</p>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새로운 학습 요소 제시 및 레슨	<p>▶전조 설명</p> <p>-전조는 악곡의 진행 중에 다른 곡조로 바꾸는 것임을 설명한다.</p> <p>-조표가 바뀌면 곡의 진행, 분위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서 연주해야함을 설명한다.</p> <p></p>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레슨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돕는다.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전 개	새로운 학습 요소 제시 및 레슨	<p>▶개인 레슨</p> <p>-학생이 학습요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한다.</p> <p>-학생 개개인의 지난 수업의 활동지를 보며 좋아진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p> <p>-전조를 잊지 않고 연습하도록 강조한다.</p>		<p>• 개인 레슨시간 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며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현재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p>▶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p> <p>-학생들이 학습요소를 글로 적으며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단계이므로 배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한다.</p> <p>-학생들이 기록한 것을 유념하여 연습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p>				
	피드백 및 쓰기	<p>▶지난 수업의 편지를 다른 단어로 바꾸고 문장 늘이기</p> <p>-지난 수업의 편지글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문장을 두 줄 이상으로 늘리도록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한다.</p> <p>-단어를 추가하거나 단어 선택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단어를 예를 들어주고 뒤이어 학생이 다른 단어를 생각해보도록 한다.</p>				
정 리	자기평가	<p>▶자기평가</p> <p>-오늘 자신을 평가하며 다음 수업의 다짐의 기회를 갖는다.</p> <p>-학생들이 자기반성이 충분히 들어간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p>	10분			
평가관점				상	중	하
인지적 영역		학생들이 전조를 인식하고 연주하였는가?				
정의적 영역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심동적 영역		학생들이 전조로 인해 변경된 음들을 왼손 손가락으로 지판의 정확한 위치에 짚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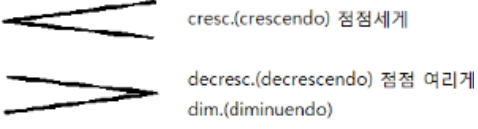
6) 6차시 학습 지도안 「노바디」

곡명		노바디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치카토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 • 제재곡의 가사 뜻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쓸 수 있다. 		
준비물		바이올린, 활동지	차시	6/8차시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출발점 파악	<p>▶지난 수업의 학습요소 확인하기</p> <p>-학생들은 전 차시 활동지를 참고하여 지난 수업의 자신을 돌아본다.</p>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새로운 학습요소 제시 및 레슨	<p>▶피치카토 설명</p> <p>-현악기의 줄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주법으로, pizz.라는 줄임말로 표기하고, 활로 연주하는 아르코와 대비됨을 설명한다.</p>  <p>-활을 들고 피치카토를 할 때에는 활이 줄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판 끝부분을 검지의 안쪽 살로 튕겨 연주함을 설명한다.</p> <p>▶개인 레슨</p> <p>-학생이 학습요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한다.</p> <p>-학생 개개인의 지난 수업의 활동지를 보며 좋아진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p> <p>-피치카토를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곳을 인지하고 재빨리 활로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레슨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다. • 개인 레슨시간 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며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현재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p>▶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p> <p>-학생들이 학습요소를 글로 적으며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단계이므로 배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한다.</p> <p>-학생들이 기록한 것을 유념하여 연습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p>		
	피드백 및 쓰기	<p>▶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쓰기</p> <p>-학생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시간을 준다.</p> <p>-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소중한 대상을 정하는 것에 있어 신경 쓰지 않도록 자신에게 소중하다면 무엇이든 가능함을 설명한다.</p>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정리	자기평가	<p>▶자기평가</p> <p>-오늘 자신을 평가하며 다음 수업의 다짐의 기회를 갖는다.</p> <p>-학생들이 자기반성이 충분히 들어간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p>	10분			
평가관점				상	중	하
인지적 영역	학생들이 피치카토 연주 방법을 이해하고 연주하였는가?					
정의적 영역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심동적 영역	학생들이 피치카토를 하기 위해 활이 줄에 닿지 않게 들고 살점으로 현을 튕길 수 있는가?					

7) 7차시 학습 지도안 「유 레이즈 미 업, 노바디1」

곡명		유 레이즈 미 업, 노바디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셈여림을 표현하여 연주 할 수 있다. • 지난 수업에 적은 소중한 것으로 제재곡의 가사를 개사할 수 있다. 			
준비물		바이올린, 활동지	차시	7/8차시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출발점 파악	<p>▶지난 수업의 학습요소 확인하기</p> <p>-학생들은 전 차시 활동지를 참고하여 지난 수업의 자신을 돌아본다.</p>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새로운 학습 요소 제시 및 레슨	<p>▶셈여림 설명</p> <p>-악곡의 부분 또는 전반에 걸쳐 음의 셈과 여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설명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i>ff</i> - <i>f</i> - <i>mf</i> - <i>mp</i> - <i>p</i> - <i>pp</i> <small>포르티시모 포르테 메조포르테 메조피아노 피아노 피아니시모</small> </p>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레슨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돕는다.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전 개	<p>-활의 커는 위치와 속도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달라짐을 설명한다. 활의 밑으로 브릿지 가까이에서 활을 빠르고 많이 사용하면 크고 거친 소리가 나고 활 끝으로 지판 가까이에서 활을 천천히 조금 사용하면 작고 여린 소리가 나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준다.</p> <p>-혼자 연주할 때에는 자신의 느낌에 따라 정하여 곡을 표현하고 연주할 수 있지만 합주를 할 때에는 썬여림을 약속한 부분에서 같이 표현함을 설명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개인 레슨</p> <p>-학생이 학습요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한다.</p> <p>-학생 개개인의 지난 수업의 활동지를 보며 좋아진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p> <p>-썬여림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반되는 2곳을 먼저 지도한다. 곡의 절정에서의 포르테와 마지막 2마디를 점점 여리게 연주하는 것만 지도한다.</p>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레슨시간 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며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p>▶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p> <p>-학생들이 학습요소를 글로 적으며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단계이므로 배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한다.</p> <p>-학생들이 기록한 것을 유념하여 연습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p>		
전 개	<p>▶노바디 개사하기</p> <p>-지난 수업에 적은 소중한 것에 관련하여 개사하도록 한다.</p> <p>-1절 가사를 보며 쓰고 싶은 문장을 줄이거나 늘리고 박자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원곡의 가사 내용이 소중한 사람에게 애원하는 내용이므로 학생들도 소중한 것 또는 사람 등과 헤어지거나 잃어버렸을 때와 같은 느낌으로 개사하도록 지도한다.</p> <p>-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원곡의 노래를 불러보고 한 프레이즈씩 개사하도록 지도한다.</p>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레슨시간 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며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정리	자기평가	<p>▶자기평가</p> <p>-오늘 자신을 평가하며 다음 수업의 다짐의 기회를 갖는다.</p> <p>-학생들이 자기반성이 충분히 들어간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p>	10분			
평가관점				상	중	하
인지적 영역		학생들이 썬여림을 이해하고 연주하였는가?				
정의적 영역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심동적 영역		학생들이 썬여림을 표현하기 위해 활의 위치와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가?				

8) 8차시 학습 지도안 「유 레이즈 미 업, 노바디2」

곡명		유 레이즈 미 업, 노바디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연주할 수 있다. 연주 후 합주한 소감을 표현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쓸 수 있다. 				
준비물		바이올린, 활동지	차시	8/8차시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출발점 파악	<p>▶지난 수업의 학습요소 확인하기</p> <p>-학생들은 전 차시 활동지를 참고하여 지난 수업의 자신을 돌아본다.</p>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새로운 학습 요소 제시 및 레슨	<p>▶합주에서 유의할 점 설명 및 레슨</p> <p>-합주를 할 때는 한 파트에서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하더라도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같이 호흡하며 연주해야함을 설명한다.</p> <p>-활 방향은 악보에 반드시 표시해두고 쉬는 마디 전이나 끝나는 마디에서 앞사람과 활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함을 설명한다.</p> <p>-합주는 혼자 돋보이도록 연주해서는 안 되므로 썬여림도 함께 연습하여 혼자 연주할 때보다 더욱 큰 효과가 나도록 연습해야함을 설명한다.</p> <p>-지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지휘를 보고 곡을 시작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악장이 숨을 크게 쉬어 시작함을 알려준다.</p>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레슨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돕는다. 개인 레슨시간 후 학생들이 활동지를 작성하며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전 개		<p>▶그룹 레슨</p> <p>-5명씩 그룹을 만든다.</p> <p>-개인의 실력보다는 함께 연주했을 때 고쳐야할 점을 지도한다.</p>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현재 학습요소 쓰기 및 연습	<p>▶오늘 배운 학습요소 쓰기 및 그룹연습</p> <p>-학생들이 학습요소를 글로 적으며 이해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재정립하는 단계이므로 배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한다.</p> <p>-학생들이 기록한 것을 유념하여 연습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p>				
	피드백 및 쓰기	<p>▶합주 소감 쓰기</p> <p>-합주를 하며 느낀 점을 적도록 한다.</p> <p>-내용의 주체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되도록 하고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변화된 점 등을 쓰도록 한다.</p>				
정 리	상호평가	<p>▶상호평가</p> <p>-친구들을 평가하여 자신의 그룹이 연주한 것과 비교해 본다.</p>	10분			
평가관점				상	중	하
인지적 영역	학생들이 합주와 독주의 차이를 이해하고 연주하였는가?					
정의적 영역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심동적 영역	학생들이 바른 자세로 앉아 활을 맞추어 연주 할 수 있는가?					

[부록2] 활동지

1) 1차시 활동지

<h2>의 활동일기 }</h2>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p>2. 음악으로 마인드맵 만들기</p>		
<p>3. 오늘의 나는 어땠나요?</p>		
<table border="0"><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왼손 손가락 세워서 누르기• 왼손 손목 곧게 펴기•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누르기• 음정 테이프에 꼭 맞게 누르기</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오른손 엄지손가락 굽히기• 활 밑부터 끝까지 활 다 쓰기• 활털과 줄을 밀착시켜 울리는 소리 내기• 팔로 악기 들지 않고 어깨와 턱으로 들기• 책상과 벽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펴기</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왼손 손가락 세워서 누르기• 왼손 손목 곧게 펴기•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누르기• 음정 테이프에 꼭 맞게 누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오른손 엄지손가락 굽히기• 활 밑부터 끝까지 활 다 쓰기• 활털과 줄을 밀착시켜 울리는 소리 내기• 팔로 악기 들지 않고 어깨와 턱으로 들기• 책상과 벽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왼손 손가락 세워서 누르기• 왼손 손목 곧게 펴기•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누르기• 음정 테이프에 꼭 맞게 누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오른손 엄지손가락 굽히기• 활 밑부터 끝까지 활 다 쓰기• 활털과 줄을 밀착시켜 울리는 소리 내기• 팔로 악기 들지 않고 어깨와 턱으로 들기• 책상과 벽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펴기	

3) 3차시 활동지

{	<h2>의 활동일기}</h2>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p>2.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p>											
<p>3. 오늘의 나는 어땠나요?</p>											
<table border="0"><tr><td>•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td><td>• A-E선으로 바뀔 때 오른손 활의 각도를 정확하게 바꿈</td></tr><tr><td>•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td><td>• 슬러는 부드럽게 연결하여 소리내기</td></tr><tr><td>• 왼손 손목 곧게 펴기</td><td>• 정확한 음정으로 소리내기</td></tr><tr><td>•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td><td>• 임시표 시♭과 시♮지키기</td></tr><tr><td>•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td><td>• 악센트 (그 음만 특히 세게) 지켜서 연주</td></tr></table>		•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 A-E선으로 바뀔 때 오른손 활의 각도를 정확하게 바꿈	•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 슬러는 부드럽게 연결하여 소리내기	• 왼손 손목 곧게 펴기	• 정확한 음정으로 소리내기	•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 임시표 시♭과 시♮지키기	•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 악센트 (그 음만 특히 세게) 지켜서 연주
•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 A-E선으로 바뀔 때 오른손 활의 각도를 정확하게 바꿈										
•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 슬러는 부드럽게 연결하여 소리내기										
• 왼손 손목 곧게 펴기	• 정확한 음정으로 소리내기										
•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 임시표 시♭과 시♮지키기										
•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 악센트 (그 음만 특히 세게) 지켜서 연주										

5) 4차시 활동지2

<You raise me up> 가사를 읽으며 감상해보세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6) 5차시 활동지

{	<h2>의 활동일기}</h2>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p>2. 지난 수업의 편지 고쳐 쓰기(짧게 표현된 문장을 보충하여 자세하게 표현하고 단어를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로 바꾸어봅시다.)</p>			
<p>3. 오늘의 나는 어땠나요?</p>			
<table border="0"><tr><td style="vertical-align: top;"><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왼손 손목 곧게 펴기•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td><td style="vertical-align: top;"><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음표 박자 정확하게 지켜서 연주하기• 슬러는 부드럽게 연결하여 소리내기• 바이올린이 쉬는 마디 확인하기• 온음표 활 천천히 쓰기• 어깨에 힘 빼고 부드러운 소리내기</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왼손 손목 곧게 펴기•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음표 박자 정확하게 지켜서 연주하기• 슬러는 부드럽게 연결하여 소리내기• 바이올린이 쉬는 마디 확인하기• 온음표 활 천천히 쓰기• 어깨에 힘 빼고 부드러운 소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왼손 손목 곧게 펴기•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음표 박자 정확하게 지켜서 연주하기• 슬러는 부드럽게 연결하여 소리내기• 바이올린이 쉬는 마디 확인하기• 온음표 활 천천히 쓰기• 어깨에 힘 빼고 부드러운 소리내기		

7) 6차시 활동지

{	<h2>의 활동일기}</h2>		
<p>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p>			
<p>2. 여러분이 소중한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봅시다.</p>			
<p>3. 오늘의 나는 어땠나요?</p>			
<table border="1"><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왼손 손목 곧게 펴기•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치카토 바른 자세로 연주하기• 아르코 준비하기• 바이올린이 쉬는 마디 확인하기• 온음표 온화할 쓰기• 첼표에서 소리내지 않기</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왼손 손목 곧게 펴기•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치카토 바른 자세로 연주하기• 아르코 준비하기• 바이올린이 쉬는 마디 확인하기• 온음표 온화할 쓰기• 첼표에서 소리내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왼손 손목 곧게 펴기•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치카토 바른 자세로 연주하기• 아르코 준비하기• 바이올린이 쉬는 마디 확인하기• 온음표 온화할 쓰기• 첼표에서 소리내지 않기		

8) 7차시 활동지

{ 의 활동일기}

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2. 노바디 개사하기

난 싫은 - 데 왜 날 밟아 - 내 러 고 하 니 자 - 꾸 내 달 은 뜰 지 않 - 고 .

21
왜 이렇 - 게 나쁜 남 자 에 - 게 날 보 내 러 하 - 니 어 땀 게 이 러 - 니

25
날 위 해 그 말 다 는 말 - 년 부 족 하 다 는 그 말 - 이

29
겉 그 안 껍 - 씌 나 잘 알 았 아 - 왜 원 하 지 도 않 는 걸 강 요 해 I want

3. 오늘의 나는 어땠나요?

- | | |
|------------------|--------------------|
| •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 • 피치카토 바른 자세로 연주하기 |
| •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 • 아르코 준비하기 |
| • 왼손 손목 곧게 펴기 | • 첨여림표에 맞게 연주하기 |
| •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 • 온음표 온화물 쓰기 |
| •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 • 쉼표에서 소리 내지 않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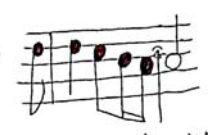
[부록 3] 활동지 결과물

1) 학생 활동지 결과물 1

{ 베로벤고박자 의 활동일기 }

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 박자를 정확히 또리내야한다.
- 16분음표랑 8분음표 구분해서 또리내야한다.
- 16분음표는 또리만내고 쉬어야 한다.
- 두박자 채우고 다음거 나온다.



슬러 W


W 이렇게 박자 해야 한다.
(슬러가 있어서)

2. (You Raise Me Up) 감상 후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TO. 바이올린쌤

일학년때는 거의 못했는데. 이학년때는 연습 열심히 해서
하는 척만 안하고 진짜로 할게요. ㅋㅋ

일학년때는 열심히 않했는데. 이학
년때는 열심히 할게요. 삼학년때도
열심히 할게요!



3. 오늘의 나는 어땠나요?

-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 점음표 박자 정확하게 지켜서 연주하기
-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 슬러는 부드럽게 연결하여 소리내기
- 왼손 손목 곧게 펴기
- 바이올린이 쉬는 마디 확인하기
-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 온음표 활 천천히 쓰기
-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 어깨에 힘 빼고 부드러운 소리내기

어깨높이 만큼 악기를 올려야하는데 안올려서 근원위에는 올려야겠다.
그리고 바이올린에 끼는거를 반대로 끼어서 제대로 써야겠다.
또 점음표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서 연주해야겠다.

2) 학생 활동지 결과물 2

{
{
}
}
}

극제시, 연주회

의 활동일기}

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 피치카토 (피코. 죽임으로 표시한다)
- 손가락을 튕겨 연주하는 것이다
- 감지 손가락의 삼경으로 튕겨야 한다
- 아르코 → 대신 아르코 연주해야 한다
- 활대가 죽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2. 여러분이 소중한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봅시다.

My Boy friend ♡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반쪽이니까 ㄱㄱ

3. 오늘의 나는 어땠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 왼손 손가락 세워서 짚기 • 왼손 손목 곧게 펴기 • 지판과 현을 빈틈없이 짚기 • 활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치카토 바른 자세로 연주하기 • 아르코 준비하기 • 바이올린이 쉬는 마디 확인하기 • 운음표 운할 쓰기 • 침표에서 소리내지 않기
---	---

오늘은 피치카토를 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침표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연주 할 수 있었어요.

3) 학생 활동지 결과물 3

{ 참수 바이올린 의 활동일기 }

1.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8분음표와 16분음표는 음길이가 다함 때문에 구별해서 연주해야한다.

숨표와 쉬는 마디를 생각하면서 연습한다.

8분음표는 자습지만 꼭 지켜서 연주해야한다.

점격음표는 하나들셋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넷이 되기 전까지 소리내야한다.

2. (You raise me up) 감상 후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엄마에게

어제 저녁에 화내서 죄송해요.

앞으로 하원 안 빠지고 공부열심히해서 성적 꼭 올릴게요.

그리고 아침에 엄마 만수들게 개우면 한번에 일어날게요.

3. 오늘의 나는 어땠나요?

- | | |
|------------------|------------------------|
| • 어깨높이만큼 악기 올리기 | • 점음표 박자 정확하게 지켜서 연주하기 |
| • 왼손 손가락 세워서 쥘기 | • 슬러는 부드럽게 연결하여 소리내기 |
| • 왼손 손목 골개 펴기 | • 박자울림이 심는 마디 악연하기 |
| • 지판과 현을 반쯤얹어 쥘기 | • 분음표 잘 현현어 쓰기 |
| • 왼 바른 손 모양으로 잡기 | • 어깨에 힘 빼고 부드러운 소리내기 |

슬러는 부드럽게 연결해서 소리내야 하는데, 다른 줄을 건드리다.

손톱을 각지 않아서 손가락 세우기가 어려웠다.

8분음표와 16분음표를 다르게 연주하기가 힘들다.